# 소년단

19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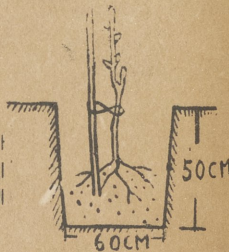
# 포도를 많이 심고 가꾸자

소년단원 동무들! 학교와 가정에서 포도를 많이 심고 가꿉시다.

## 포도나무모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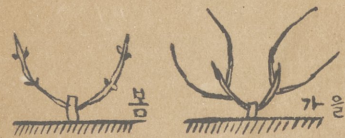
포도 나무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을에 큰 포도 나무에서 1 년생 가지들을 잘라다가 2~3 개씩의 눈(움)을 남기고 짧게 자른다. 다음 그 가지는 50~100 대씩을 묶어서 땅 속에 묻어 겨울을 낸다. 봄에 이것을 파내서 밭 고랑을 만들고 70 cm의 사이를 두고 심는다. 묻을 때 주의 할 것은 맨 우의 눈이 땅 우에서 3~4 cm 정도의 깊이에 묻히게 해야 한다. 가지에서 움이 트면 한해 여름 잘 가꾸어 주었다가 가을에 가서 그것을 떼다 심으면 된다.

## 포도 나무 심기

⇨ 포도 나무를 심으려면 그림과 같이 깊이 50 cm 넓이 60 cm의 구덩이를 파야한다. 겉흙은 한쪽에 따로 파내 놓았다가 질 좋은 자급 비료와 과린산 석회를 잘 섞어서 구덩이에 원추 모양으로 볼록하게 놓고 나무모의 뿌리를 사방에 자연스럽게 펴놓은 다음 부드럽고 습기 있는 흙을 놓고 다져 준다.

## 포도 나무 모양 만들기

포도 나무의 모양 만들기는 덕대식, 울타리식, 그루식등 재배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부채 모양 만들기— (울타리 같은데 뻗게 하는 방법)

⇧ 첫 해에는 2~3 개의 튼튼한 가지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키운다. (그림)

⇧ 이듬해—2년째는 매가지에 2~3 개의 눈을 남기고 잘라 주어 4 개의 튼튼한 가지를 키운다. (그림)

⇧ 3년째는—4 개의 가지중에서 맨 우의 2 개 가지 (ㄱ, ㄴ)는 60 cm 정도의 길이를 남기고 자르며 밑 부분의 2 개 가지 (ㄷ, ㄹ)는 2~3 개의 눈을 남기고 자른다.

⇦ 4년째는 맨 첫해에 자란 가지 중에서 맨 우의 2 개 가지 (그림 ㄱ, ㄴ)는 길게 잘라서 열매가 달리는 가지로 하며 밑 부분에 있는 2 개 (그림 ㄷ, ㄹ) 가지는 cm 정도로 잘라 주며 4 개 (그림 ㅁ, ㅂ, ㅅ, ㅇ)의 가지는 각각 2—3 개의 눈을 남기고 자른다.

△ 집에서 몇포기씩 심는 것은 덕대를 세워 주고 넝쿨을 덕대 우에 올리는 것이 좋다. 덕대 우에 올리는 포도 나무를 가꾸는 방법은 첫 해에 한 대의 가지를 튼튼하게 키운다. 이듬해 봄에 1.5 m 높이에서 잘라 주어 2 개의 가지를 키운다. 3 년 째 되는 해에는 전 해에 자란 2 개의 가지를 각각 1 m 정도의 길이로 남기고 자른다.

그 다음 해부터는 부채형 만들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 소년단

3
1964

# 차 례

#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시절

(제 12 회)

강 효 순　　　　그림 최 순천

원수님의 머리에는 작년 여름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날은 저녁을 일찍 마치고 온 가족이 뜨락에 풍석을 펴고 아버지로부터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별을 보고 동, 서, 남, 북을 찾는 방법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맨 북쪽에 있는 북극성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북극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북두칠성을 찾아야 하는데 북두칠성의 4 각형 밖에 있는 두 별을 련결하는 선을 길게 늘이고서 그 두 별 간의 거리의 5 배쯤 앞에 내다보이는 밝은 별이 바로 북극성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원수님은 그 때부터 밤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북극성을 찾군 하였습니다.

(밤에는 북극성을 보구 방향을 찾구, 낮에는 나무'가지를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으니까 깊은 산에서도 방향을 잃을 념려는 없



구나.)

원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며 흙 구덩이를 메웠습니다.

어느덧 두 그루의 소나무는 학교 정문 앞에 가지런히 서게 되였습니다. 원수님은 만족한 얼굴로 소나무들을 바라 보았습니다. 아이들도 기쁨에찬 눈으로 바라 보았습니다.

원수님은 이 소나무들이 싱싱 자라 아름드리 나무가 되여 학교의 이름과 함께 길이길이 남아 있도록 정성 들여 자래우리라고 마음 속으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 10

이 날은 나무 심기로 하루 작업이 끝났습니다.

원수님은 몇 동무들과 함께 운동장을 지나 천천히 언덕길을 걸어 마을로 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학교 앞으로 흐르는 내'가 나무다리 옆에 많은 아이들이 둘러 서고 와작 고아 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듯 싶었습니다.

《우리두 가 보자!》

그들은 단숨에 그리로 뛰여 갔습니다. 아이들이 어깨성을 쌓고 죽 둘러 섰는데 좀처럼 뚫고 들어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투덕투덕》 하는 소리와 함께 《응홍 으홍》 하는 울음'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누가 싸우냐?》

하고 윤병이가 물었습니다.

《칠골하구 팔골하구 또 붙었어.》

서고 있던 한 아이의 대답이였습니다. 윤병이는 쑤시고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원수님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들이 죽 둘러 선 한복판에서는 열두세 살 가량 되여 보이는 두 아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딩굴고 있었습니다. 아래 깔린 아이는 무라치 숨쉬듯이 씨근덕거리며 다시 뒤쳐 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다리를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우에 올라 선 아이도 등에 먼지가 가뜩 묻은 것으로 보아 아래 깔렸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는 깔린 아이를 덮어 누르고 연송 주먹으로 내갈려 대고 있었습니다. 깔린 아이는 팔을 쭉 뻗치고 그 애 주먹을 막느라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러 서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싸움하는 아이들의 바로 곁에는 호철이가 서고 있는데 그 애는 마치 씨름판의 심판과도 같이 허리를 척 굽히고 무릎 우에 두 손을 짚고 싱글벙글 웃으며 재미 있게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싸우는데 너희들은 구경들만 하고 있는거냐.》

윤병이가 앞으로 썩 나서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호철이가 윤병이 앞을 칵 막아 섰습니다. 《여지껏 팔골이 깔렸댔는데 겨우 뒤쳐 놓았다. 저 이마'배기 벗어진 걸 봐라.》

이렇게 말하는 호철이의 기세는 아주 등등했습니다. 노상 두 눈을 왕방울처럼 디굴디굴 굴리는 것이였습니다. 윤병이가 싸움을 말리려고 더 앞으로 나선다면 내버려 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칠골 아이들과 팔골 아이들의 무리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윤병이도 정의감이 꺾이고 마는듯 하였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우뚝 멈추고 호철이를 아니꼬와하는 눈초리로 바라 볼 뿐이였습니다. 호철이는 두 팔을 척 굽혀 허리를 짚으며 가슴을 내밀고 아이들을 쓱 둘러 보았습니다. 호철이의 위세에 눌리어 누구도 윤병이를 도와 나서지 못 했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비껴라.》 하며 원수님은 윤병이를 약간 밀며 앞으로 썩 나섰습니다.

《칠골이구 팔골이구가 뭐냐, 싸우는 걸 보구서야 말려야지!》

원수님은 비호처럼 달려 들어 우에 타구 앉은 아이의 겨드랑을 잡아 닁큼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두 다리를 버둥거렸으나 원수님의 힘을 당해 낼 수 없었습니다. 아래 깔렸던 아이는 이 때라는듯이 후닥닥 일어나 그 애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한 팔로 그 애의 앞을 막았습니다. 이 때에 칠골 아이들이 그 애를 붙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싸움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호철이는 노기가 등등하여 원수님을 아래우로 훑어 보다가

《넌 무슨 상관이냐, 건방지게.》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원수님도 엄한 태도로 호철이를 흘겨 보았습니다.

《누가 할 말을 하는거냐, 싸움을 말렸는데 너는 무슨 상관이냐.》

원수님의 음성은 골안을 쩡쩡 울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한동안 날카롭게 마주쳤습니다. 그는 감히 대들지는 못 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러 서고 있는 아이들은 손에 땀을 쥐고 두 동무를 번갈아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시비를 가려 보겠으면 학교루 올라 가자!》

원수님의 말이였습니다.

《흥! 교장이 친척이라구 뽐내는구나! 좋다, 두고 보자!》

《볼 테면 보자꾸나, 두구 보자는 놈은 무서운게 없더라.》

원수님은 픽 웃었습니다.

아까 싸우던 아이들은 원수님과 호철이 사이에서 주고 받는 말들이 거칠어지자 먼지들도 털지 못 하고 눈들이 동그래 있었습니다. 원수님이 웃는 것을 보고서야 저으기 마음이 놓였습니다.

싸우던 아이들은 서로 저희들끼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먼지 구덩이에서 한참 딩굴 그들의 몰골은 정말 망칙했습니다. 얼굴과 머리에서부터 적삼과 잠방이까지 모두 먼지 투성이였습니다.

상대편을 바라 보면서 자기 꼴도 그러하려니 생각하니 그들도 웃음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싸운 사실은 잊은듯이 서로 바라 보며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넌 뭐가 좋아서 웃는거냐, 어서 가자.》

호철이가 팔골 아이의 옆구리를 꾹 찌르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팔골 아이들은 호철이를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한 패 밀려 언덕길을 걸어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왜들 싸웠니?》하고 윤병이가 물었습니다.

《호철이 그 자식이 쌈을 붙였단다.》

싸움한 아이의 대답이였습니다.

《어떻게?》

《호철이 그 자식이 까투리를 내 곁으로 밀치더구나. 그래서 까투리를 한 개 박아 주었지 뭐, 그랬더니 그 자식이 하는 말이 〈너 왜 호철이가 나를 밀쳤는데 나를 때리는 거냐.〉 하고 따지지 않겠니, 그래서 〈네가 내게 부딪쳤으니까 너하구 해 볼 밖에 없지 않니.〉 하고 쏘아 주었지 뭐, 그랬더니 이 번에는 호철이 그 자식이 길 옆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주면서 눈을 끔벅거리더구나. 그러자 까투리 그 자식이 돌멩이로 나를 때리면서 〈그럼 돌멩이 하구나 해 봐라〉하지 않겠니.》

《그래서 어쨌니?》

《돌멩이를 닁큼 집어 그 자식을 때려 주면서 〈이 놈의 돌멩이, 왜 나를 때리니.〉 하구 말했지 뭐, 아마 까투리 그 자식이 뒤'잔등이 뻐근했을 거야.》

그 애는 상글상글 웃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한테 되게 얻어 맞은 놈이 그냥 있겠니? 달려 들더구나. 그래서 부더 안구 딩굴었지 뭐.》

《그런데 넌 왜 호철이를 박아 주지 않구 그 애와 싸웠니.》하고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다.

《흥! 메'돼지 같은 그 애한테 붙었다가 뼈다구 부러지려구.》

그 애는 노상 펄쩍 뛰는 것이였습니다.

《사람의 뼈다구를 함부루 꺾는다던. 하여간 싸움은 맹랑하게 시작됐구나. 앞으로는 호철이가 아무리 쌈을 붙일려구 해두 아예 싸우지 말아라.》하고 타일렀습니다.

원수님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작은 아이들을 추겨서 싸움을 붙이는 호철이의 심정을 도무지 리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하나 사이를 둔 두 마을에서 칠골이니 팔골이니 하면서 싱갱이질을 하는 리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그것을 윤병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두 동네 아이들은 만나면 싸움이란다. 하기야 뭐 아이들만 그런 줄 아니, 어른들도 서로 편 싸움이 대단하단다. 이제는 좀 친해졌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두 두 마을에서 석전이 얼마나 무섭게 벌어졌기, 그러니 정월 보름부터 시작하면 5월 단오까지 계속했는데 뭐, 계속 돌팔매가 윙윙 날아 오는데 글쎄 얼마나 급했기에 우물루 도망해 들어 갔겠니.》

《그러다가 사람 상하면 어쩌냐.》

《물론 장독두 깨지구 사람두 상했지 뭐, 머리 터지는 것쯤이야 보통이였지.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한 번 연설을 했단다. 그 때 들으니까 우리 나라에서 석전은 고구려 때부터 시작됐나부더라. 그 때는 우리 나라를 쳐들어 오는 외적들을 막기 위해서 돌팔매를 련습하구 석전을 련습했다는거야. 그런데 그 풍속이 잘못 전달되여 가지구 곁에 있는 마을들끼리 석전을 했다는거야, 교장 선생님의 연설이 있은 후부터는 점점 김이 떠지기는 했어. 금년에는 대보름날만 조금 했단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두 동네 사람들은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서루 친하게 지내지 못 하구 있단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까지 물든 모양이구나.》

《그럼! 그러기 우리 동네 아이들이 팔골

에 가면 팔골 아이들이 터세를 하구 그 애들이 우리 동네 오면 우리 동네 애들이 터세를 한단다.》

《학교에서는 어떠냐?》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무서워서 꼼짝 못 한단다. 그러기 너의 할아버지를 호랑이 교장이라구 그런단다.》

그들은 서로 바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오늘두 덕범이가 없었기 말이지 그 애가 여기 있었더라면 또 편쌈이 벌어졌을게다.》

《그 애가 쌈을 잘 하는 모양이구나.》

《그러기 배나무 방치라구 그러지 않니. 그렇지만 이제는 네가 있으니까 팔골 아이들두 꼼짝 못 하게 됐어! 아까 보렴아, 네가 썩 나서니까 호철이두 꼼짝 못 하지 않던?》

《그럼 너는 나를 대장으로 내세울 작정이구나, 하하하하》

원수님은 큰 소리로 한동안 웃었습니다.

《내가 나섰다구 그 애가 꼼짝 못 한 게 아니라 내 말이 옳은 말이였으니까 꼼짝 못 했다는 걸 알아야 해.》

《아니야, 호철이 그 자식에게는 든든한 주먹이 필요해. 네가 그 애를 좀 길들여다구. 우리 학교에서 그 애만 찍소리 못 하게 해 놓으면 편쌈은 없어질 게다.》

《칠골 아이들끼리는 친하게들 지내니?》

하고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칠골이 한동네처럼 보이지? 그렇지만 칠골에두 세 동네루 나누어 있는 셈이란다.》

《어째서?》

《강가, 최가, 리가들이 서루 딴 나라 사람들처럼 서로 담을 쌓구 산단다. 가래나 삽이 없어두 타성을 가진 사람네 집으로는 빌리려두 안 가구, 가도 빌려 주지 않는단다. 나락 멍석이 비에 떠내려 가는 걸 보구두 못 본척 하니까 말할게 있니, 아마 곁의 집이 불이 나두 꺼 주지 않을게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두 그냥 쌈이란다. 정말 개판이야.》

원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한 나라 사람들끼리 더구나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어쩌면 그렇게 지낼 수 있을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리해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원수님의 머리에는 8도구에서 있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림강에서 8도구로 와서 소학교에 편입했을 때에 조선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조선 아이들과 중국 아이들 사이는 그리 좋지 못 하였습니다. 조선 아이들은 중국 아이들에게 눌리워서 기를 펴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님께서 이 학교에 편입한 때로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조선 아이니 중국 아이니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조선 아이와 중국 아이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싸우게 된 사실을 정확히 알아 보고 누가 옳고 누가 글다는 것을 똑똑히 밝혀 주었습니다. 학습에서 언제나 최우등이며 체육과 예술도 잘 하며 마음이 어질고 언제나 사리 정연한 주장을 하는 원수님에 대한 학생들의 신망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원수님께서 3학년으로 진급한 때부터는 조선 아이들과 중국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틈도 없이 같이 다니면서 재미 있게 놀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원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노는 아이들이 40~50 명으로 늘었습니다. 8도구에 사는 같은 또래는 조선 아이건 중국 아이건 가리지 않고 모두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때부터 8도구 아이들은 별로 싸움이라군 아예 하지 않게 되였습니다. 원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밀려 다니면서 세차게 장난도 했고 유쾌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도 원수님께서

《자, 이제는 그만 놀구 돌아 가서 학습들을 하자.》

하고 말하면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 가군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서로 다른 나라 아이들과도 친하게 놀았는데 이 곳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기를 좋아할가 생각했습니다.

원수님은 아까 싸우던 아이들과 호철이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꼭 같이 람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집 아이들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불쌍한 아이들끼리 무엇 때문에 싸우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싸울 힘이 있으면 일본놈들과 싸웠으면 싶었습니다.

(몰라서 서로 싸울거야. 그들에게 잘 깨우쳐 주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해야 한다.)

원수님은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우면서 친하게들 놀수 있게 하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작문)

# 이 기쁨, 이 행복

오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김 일성 원수님이 우리 농촌 어린이들에게 보내 주신 겨울옷 타는 날입니다.

동산 우에 아침 해'님이 두둥실 떠올라 온 마을에 황금'빛을 뿌려 줍니다.

얼굴마다에 행복한 웃음을 담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모여 옵니다. 유치원 동생들은 새옷을 준다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깡충깡충 뜁니다.

이윽고 옷을 내여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석단 한가운데는 원수님의 초상화가 높이 모셔 있습니다.

《새옷을 입고 공부를 더 잘 하여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라.》

원수님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어쩔 바를 몰라 손'벽을 치기도 하고 방글방글 웃기도 합니다.

《리 찬복 학생.》

리당 위원장 아저씨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목에 이끌리어 달려 나갔습니다. 나는 폭신한 겨울옷과 외투 그리고 겨울 모자를 탔습니다.

포근한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나는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집으로 돌아 올 때 어머니는 나의 새 외투와 모자를 만져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때 미국놈들이 학살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쑤를 갚는 마음으로 더욱 공부를 잘 하여 김 일성 원수님의 이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미국놈이 그지없이 미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그 놈의 미국놈들이 아직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치가 떨립니다.

지금 남반부의 우리 동무들은 헐벗고 굶주리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습니다. 하루 바삐 미제 원쑤놈들을 몰아 내고 그 애들과 함께 이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원쑤를 갚고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 준 김 일성 원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공부에 힘써 언제나 최우등생이 되겠습니다.

평남도 숙천군 신풍 중학교

중등반 1학년 리 찬복

# 조직의 위임

김 철 호

동무들은 항일 빨찌산 때의 아동단원들이 아동단의 규률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혁명은 견결하고 용감한 소년을 요구하거니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나아가라.

—조직에서 주는 그 어떤 임무건 성실히 수행하고 견실하게 공작하라.

그 때 아동단의 규률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아동단원들이 이 규률 조항을 지켜 조직의 위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수행했으며 조직의 위임을 수행하는 동안 그 앞길에 가로 놓이군 하는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어떻게 용감하게 뚫고 이겨 나갔는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1933년여름 나는 도무거우라는 곳에서 일제 원쑤놈들에게 부모를 잃은 복남이라는 아동단원과 함께 혁명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 습니다.

복남이의 임무는 우선 아동단을 조직하고 믿을만한 소년들을 그 주위에 묶어 세우는 것이였습니다.

모든 혁명 임무가 다 그렇지만 혁명 조직을 꾸리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굳건한 혁명 조직이 많아질수록 그 만큼 원쑤를 반대하는 힘은 커지기 때문에 그 만큼 빨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열 두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복남이는 이 일을 훌륭히 해 나갔습니다.

복남이는 먼저 아이들을 친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과 휩쓸려 놀기도 하고 그들의 일'손도 도와 주면서 어느 새 많은 아이들을 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단을 조직하는 일은 경각성을 높여 침착하게 해야 했습니다.

원쑤놈들과 그 앞잡이 놈들이 많은 곳에서 비밀히 이 혁명 임무를 수행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 복남이를 걱정스러워 했지만 그는 어른처럼 생각이 깊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걱정스럽게 말하니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내가 들어 누워 앓는 척 할터이니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고 동무해 주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 애들이 찾아올게 아니예요. 그 때 그들과 사귀면 경찰놈들도 속아 넘어 갈거야요.》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동무들은 겨우 열 두 살 밖에 안 되는 어린 복남이가 어떻게 이런 신통한 궁리를 해 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가 항상 조직의 위임, 혁명 임무를 수행하는 아동단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조직의 위임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수행할 것인가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동단원들은 누구나 조직의 위임을 훌륭히 수행해 내는 것이 곧 어린 몸이지만 자기들도 혁명의 승리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단원들은 조직의 위임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해 내였습니다.

복남이는 앓는 척 하면서 병 문안을 온 아이들에게 재미 있는 이야기도 해 주고 조선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쓰라린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 주었습니다. 손'재간이 좋은 복남이는 피리 같은 것도 곧잘 만들어 주면서 아이들과 친하게 사귀였습니다. 이러는 동안 복남이는 아동단에 받아 들여야 할 아이들을 점 찍어 놓았습니다. 그 후부터 복남이는 낮이면 아이들과 함께 소도 먹이고 꼴을 베는 일을 도와 주면서 소년들도 한데 힘을 뭉쳐 유격대 아저씨들을 도와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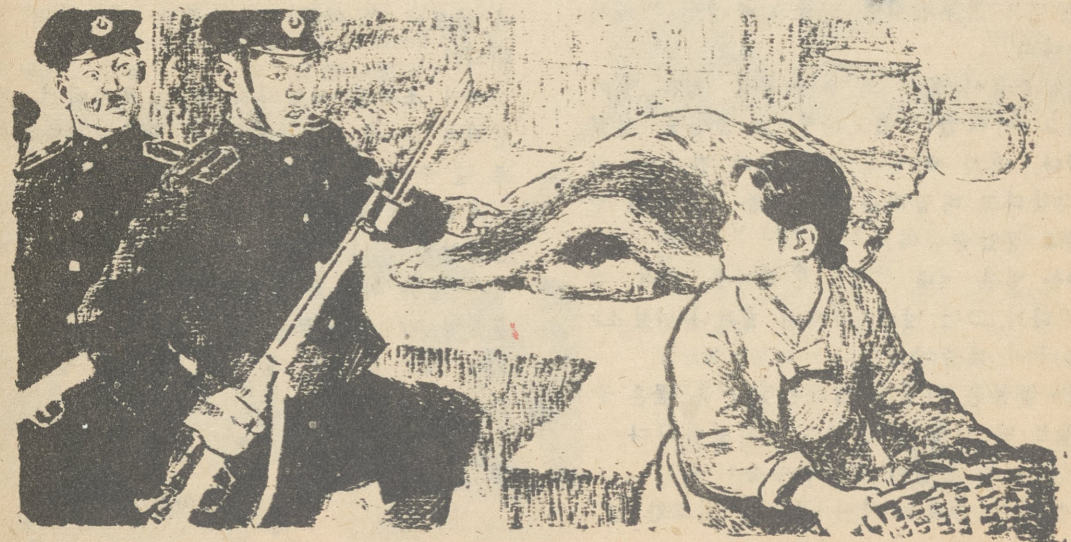
마을 아이들은 이런 복남이를 무척 따르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복남이는 스물 남짓한 소년들을 묶어 세워 도무거우에 아동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아동단을 조직한 복남이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원쑤놈들과의 싸움'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동무들과 함께 위만군 병영 곁에 가서 공차기를 하며 놀면서 공을 슬쩍 차넣고 보초놈을 속이고 병영 안에 들어 가 놈들의 움직임과 무기 등 비밀을 정찰해 가지고 돌아 오군 하였습니다. 그러다가도 놈들에게 따귀를 얻어 맞아 볼이 뚱뚱 부어 가지고 돌아 오는 때도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복남이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복남이는 어떤 아픔과 고통이라도 참고 견디였습니다.

도무거우에서 나는 주로 부녀회 일과 유격대에 보낼 물품을 구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복남이는 자기 임무도 수행하면서 내 일도 애써 도와 주었습니다.

밤에 부녀회원들이 회의할 때에는 보초도

서고 물건을 사 들일 때에는 나와 함께 짐을 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남이는 언제 한 번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남이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는 길이며,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혁명 전사로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오직 조직의 위임을 더 잘 실행하여 혁명 사업에 이바지할 생각으로만 고동쳤습니다.

이것은 혁명의 기'발 아래서 붉은 넥타이를 매며 입단 서약을 한 아동단원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단원들은 조직의 위임을 수행하는 길 앞에 어떤 어려운 장벽이 가로 놓여도 끝까지 용감히 뚫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 나와 복남이는 《토벌대》놈들이 삼도만 유격 근거지로 쳐들어 간다는 정보를 가지고 억수로 퍼붓는 비를 맞으며 80 리'길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 주인이 없는 귀틀'집에서 원쑤 놈들과 맞다들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였습니다. 순간 나는 복남이를 아래'목에 눕히고 헌 이불을 씌워 놓은 후 부엌으로 달려 내려 가 흙 묻은 감자로 치마며 팔소매를 몇 번 문질러 흙투성이를 만들고 주인인 척 하였습니다.

경찰놈들이 몰려 와 부엌 문을 벌컥 열어 제끼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메'밭에 감자 캐러 갔다가 비를 맞았다고 대답하니 복남이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얼른 《내 아들인데 감자를 캐러 같이 갔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굴러나 다쳤소》 하고 꾸며 댔습니다.

원쑤놈들은 미덥지 않다는듯이 흙 묻은 구두'발로 방 안에 들어 서는 것이였습니다.

순간 나는 눈앞이 아찔하였습니다.

복남이의 품에는 삐라 공작에 필요한 물'감, 잉크 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아래'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놈은 이불을 발'길로 떠들썩해 보는 것 같더니 나가버리는 것이였습니다. 후— 안도의 숨을 쉬고 복남이가 뒤집어 쓴 이불을 들어 본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남이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였습니다. 복남이는 내가 원쑤놈에게 꾸며대는 말을 듣고 제 손'가락을 물어 뜯어 피를 내여 얼굴에 온통 발라 놓았던 것입니다. 원쑤놈은 이런 복남이를 보고 휭하니 달아 났던 것입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긴 우리는 그날로 근거지에 도착하여 유격대 아저씨들이 원쑤놈들을 쳐부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복남이의 이야기를 들은 근거지 사람들과 유격대 아저씨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복남이가 생각해 낸 대담한 지혜와 혁명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이든 참고 이겨 내려는 그의 아름답고 굳센 마음에 감동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복남이는 유격대에 입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1941년 봄에 쟈피거우라는 곳 가까이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복남이는 이렇게 오직 혁명을 위하여 조직에 충실하였으며 조직에서 맡은 일이라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용감하고 대담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는 두려운 것이 없으며 그 어떤 원쑤놈들도 얼씬하지 못합니다.

자기 조직을 사랑하지 않고 조직에서 단련되지 못 한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혁명가로 될 수 없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이 복남이와 같은 아동단원들처럼 소년단 조직을 사랑하고 분단과 반에서 맡은 위임을 수행해 나간다면 누구나 훌륭한 민청원으로, 로동당원으로 될 수 있으며 조국 앞날의 훌륭한 일'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류 환기



㉒ 그것은 붉고 파란 깃이 달린 아름다운 날개를 훨훨 치며 날아 오는 한 쌍의 봉황새였다.

《당신은 서 대쥐를 잡으러 오는 터일테니 나를 따라 오시오.》

봉황새는 이렇게 말하며 길잡이를 해 주는 것이였다. 사령은 고맙게 여기며 앞서서 날아 가는 봉황새를 따라 걸었다.

얼마 아니 가서

《본시 서 대쥐의 무리는 남이야 죽건 살건 제 욕심만 채우는 악착한 도적놈들이지요. 그 놈들의 죄를 단단히 다스려 주시오. 예가 바로 그 놈들의 소굴이 올시다.》 하고 봉황새 한 쌍은 말을 남기고 먼 하늘'가로 날아 가 버렸다.

사령은 멀리 봉황새를 우러러 바라 보며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혔다.

㉓ 사령은 봉황새가 가리킨 곳에 가 보았다.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는데 돌문이 달려 있다.

사령은 그 돌문을 마구 두드리며 크게 호통을 쳤다.

잠시 후 애숭이 쥐가 달려 나오더니 목에 피'대부터 세운다.

《너는 어떤 짐승인데 감히 어른 댁에 기여 와서 요란스럽게 떠드느냐? 우리 두령님께선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 누워 계신다. 이 놈, 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살겠으면 빨리 물러 가거라.》

이 애숭이 쥐한테 꾸지람을 들은 사령은 성이 상투끝까지 치밀어 두 주먹을 높이 들고 덤볐다. 그러나 애숭이 쥐는 바르르 돌문 모서리에 가 숨어서 두 눈만 깜박거린다.

㉔ 사령은 애숭이 쥐를 칠 수도, 잡을 수도 없어 말로 맞서지 않으면 안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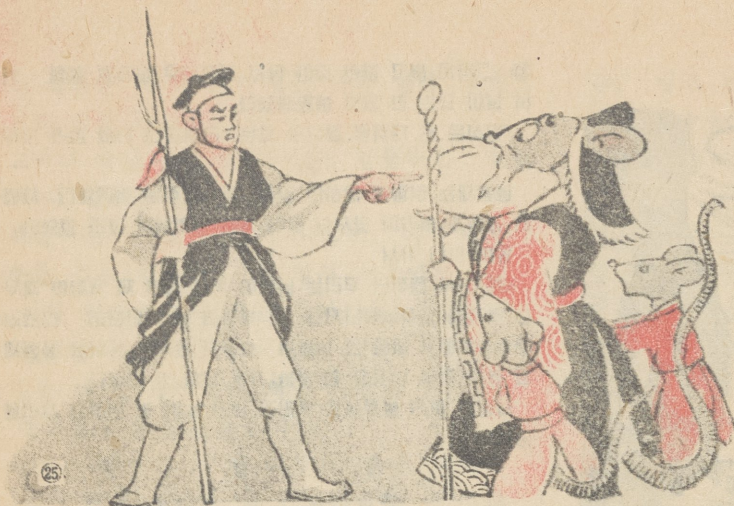
《요 좁쌀알 같은 놈아! 네 놈의 말은 나무랄 나위도 못 된다. 너의 두령을 불러 내라. 어서 썩! 이 놈의 굴을 몽땅 들부실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애숭이 쥐는 겁이 났던지 꼬리를 말아 붙이고 발발 떨면서 안으로 뛰여 들어 갔다.

애숭이 쥐는 자기 두령 앞에 나가 지금 문 밖에 난데 없는 웬 키다리 짐승이 나타나 이러이러하게 말하더라고 문'간에서 생긴 일을 자세히 아뢰였다.

㉕ 이윽고 돌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웬 늙은 쥐 하나가 크고 작은 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나온다.

사령이 성난 눈으로 바라 보니 그 늙은 쥐는 돈 같이 생긴 상판에 흰 수염을 드리우고 등은 활'등처럼 굽고 주둥이는 뾰족하여 송곳 같다. 눈알은 까만 콩알 같고 머리에는 풍차(옛날 추울 때 로인들이 머리에 쓰던 것)를 썼다.

그리고 왼 손에는 파리채를 쥐고 바른 손에는 청려장(값진 지팽이)을 짚고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였다.

㉖ 늙은 쥐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사령은 저도 모르게 «하하» 웃음을 터뜨리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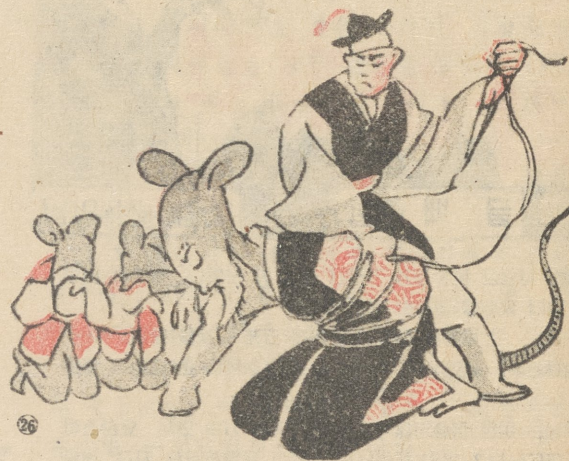
«네가 서 대쥐냐?» 하고 크게 소리쳐 물었다.

«나의 존명(높은 어른의 이름)은 그렇다만은 너는 어떤 짐승인데 어른 집 문앞에 기여 와서 이처럼 버르장머리 없이 존명을 함부로 부르느냐 응? 그 죄만 해도 살려 두지 못 하겠다.»

서 대쥐는 콩알 같은 눈을 횃득 뒤집으며 을러 댄다.

사령은 더 참을 수 없어 한 손으로 배기 (지금의 신임장과 같음)를 내보이며 다른 한 손으로는 서 대쥐의 뺨을 후리쳤다.

«너 같은 쥐새끼가 원님의 명령을 받고 온 나를 업신 여긴단 말이냐!»

사령은 서 대쥐의 두 팔을 뒤로 비끄아 붙이고 포승을 지웠다.

㉗ 서 대쥐는 뒤'짐 결박을 당하고 나서야 크게 놀라고 겁에 질려 허리를 굽신거리며 빌기 시작하였다.

«저는 원님의 명령을 받고 오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천한 몸이 쓸 데 없이 나이만 많이 먹고 병이 들어 나리님을 마중 나오지 못 했습니다. 나리님을 몰라 본 죄 백 번 죽어 마땅하오나 이 늙고 병든 몸을 동정하시와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빌던 서 대쥐는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사령더러 어서 집안으로 들어 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서 대쥐를 부축이고 나왔던 여러 쥐들도 일제히 허리를 굽혀 말했다.

«나리님, 어서 들어 가십시다!»



㉘ 나중에는 여러 쥐들이 사령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권했다.

«관자의 명령은 엄격한 법이다. 쓸데 없이 굴지 말아. 너의 두령을 빨리 데리고 가야겠다.» 하고 사령은 소매를 뿌리쳤다.

그러자 서 대쥐는 뒤'짐 결박을 당한 채 앞으로 썩 나서며 다시 허리를 굽히며 입을 연다.

«나라의 일을 보시는 나리님께선 진실로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이르기를 도틈에도 용수가 있고 죽는 약결에도 살아 나는 약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 하였습니다.

저의 일로 해서 이렇게 험한 산'길에 오셨는데 술 한 잔 권하지 못 한다면 섭섭한 저의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㉙ 사령은 여러 쥐들이 소매를 끌고 또 서 대쥐가 그렇게 은근하게 청하는 바람에 차츰 성이 삭아지면서 도리어 서 대쥐가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포승도 풀어 주고 서 대쥐의 안내를 받으며 어슬렁 어슬렁 굴 속으로 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서 대쥐는 사령을 뒤에 달고 들어 가며 속으로 웃었다.

(옳지, 이 놈도 제법 호통을 치더니 나한텐 홀려 들구 마는구나.)

㉚ 얼마쯤 들어 가니 웬 대문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서자 넓다란 뜨락이 있고 울긋불긋 단청한 집들이 나타났다. 그 중 루각처럼 높이 솟은 집으로 먼저 갔다. 거기는 주정, 산호, 금, 은을 흙과 같이 흔히 써서 장식한 빈관 (손님 접대하는 집)이였다.

빈관 바깥 방에는 네 벽에 책이 그득하고 옥으로 만든 책상 우에는 붓, 벼루, 종이가 또한 값진 것들로 갖추어져 있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름도 모를 별의별 악기가 흰 비단 창문'가에 놓여 있지 않겠는가!

«저는 책 읽기와 시 짓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돈이나 물건은 저한테 아무 소용 없지요. 원래 량반의 자손으로 태여나 그런가 봅니다…»

이런 말에 이제 와서는 사령이 오히려 주인을 우러러 보게 되였다.

㉛ 사령은 서 대쥐가 이끄는 대로 안'방으로 들어 갔다.

손님과 주인이 자리에 앉자 곧 젊은 녀쥐 하나가 음식상을 들고 들어 왔다.

분단장을 한 녀쥐는 공손히 꿇어 앉아 연신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호박(보석의 이름) 술'잔에 천일주(값진 술 이름)를 남실남실 따른다.

사령이 굽어 보니 류리(보석의 이름) 쟁반과 꽃무늬 접시들이 그득한데 거기에는 찰떡과 송편, 호두, 대추, 황률, 홍시, 은행, 개암 등이 벌려 놓였다.

사령은 술이 한두 잔 들어 가자 정신이 아리숭해지기 시작하였다.

㉜ 사령이 거나하게 취하자 서 대쥐는 슬그머니 일어 나 벽장으로 올라 갔다 내려 왔다.

《험한 길에 오셨는데 별로 위로해 드리지 못 합니다. 변변치 않지만 이걸 정으로 받아 주십시오.》

하고 서 대쥐가 내미는 손에는 야광주 한 쌍이 빛나고 있었다.

사령은 처음 사양하는 체 하였다.

《술과 떡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물품까지 바라겠습니까!》

《저는 량반으로 돈과 땅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술'잔을 나누게 된 사이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귀한 물품을 주시니 매우 고맙습니다.》

사령은 은근히 기뻐하면서 옷 속 깊이 간수하는 것이였다.

㉝ 사령이 서 대쥐의 손님이 되여 있는 동안 시간이 퍽 지나서 벌써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사령은 문득 생각이 들었던지 서 대쥐더러 곧 떠나자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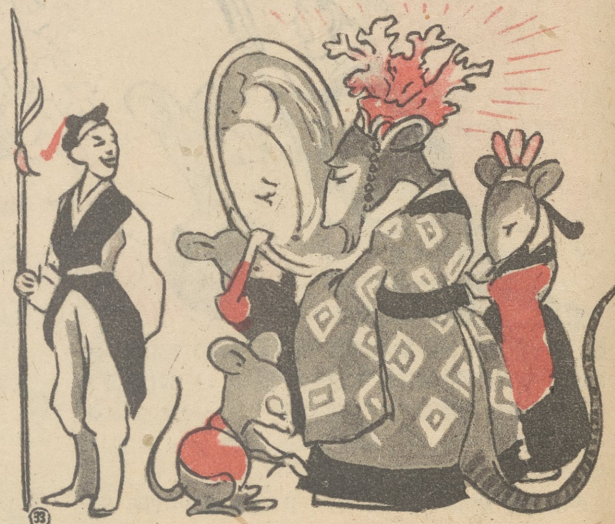
여기서 서 대쥐는 또 간청한다.

《늙은 이 몸에 병까지 겹쳐서 다리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미안한 부탁이지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관가의 문앞에 가서 내릴 터이니 그 때에 원님의 분부 대로 포승을 지워 주십시오. 그래야 이 늙은 목숨이 붙어 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벽장으로 올라 가더니 길 떠날 차비를 차리고 내려 왔다.

머리에는 탕건과 갓을 쓰고 옥관자를 붙였으며, 몸에는 왜단 저고리에 공단 고의를 입고 명주 도포를 떨친 우에 띠를 둘렀다. 그리고 손목에는 옥색 토시를 끼고 발에는 꽃무늬 갓신을 신었다.

(다음 호에 계속)

평남도 룡강군 룡강 중학교 단 제 8 분단 (《2 중 모범 분단》)에서

본사 기자 연 일덕

그림 박 성길

《순임이, 넌 분단 위원이 아니냐, 반장이 애타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 줘야 하잖겠니…》

옷차림을 단정히 할 데 대한 분단 총회가 있은 이후 분단 위원회에서 중간 총화를 하는 날입니다.

위원회에 모인 분단 위원들은 저마다 자기가 맡은 반 동무들의 옷차림이 제일이라고 자랑하는데 3 반을 맡은 순임이만은 낯을 펴지 않았습니다.

분단 위원장이 하는 말에도 그는 수그러들지를 않았습니다.

《난 차라리 다른 반을 맡아서 도우면 도왔지 3 반 동무들은 돕지 못 하겠어…》

순임이는 얼굴이 빨개서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채 입술만 잴근잴근 깨물고 있었습니다.

분단 위원회가 끝난 후에도 순임이는 분단 위원장 정희와 함께 마주 앉아 오래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아깐 너무 안타까와 그랬댔어.》

순임이는 그 날 저녁 집에 돌아 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순임이는 늘 3 반 모임에서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 한 영월이와 순자 동무에게 《너희들은 렴치도 없는 아이들이야. 그래 분단 총회 결정을 실천하지 않을테냐?》 하고 뾰루퉁해서 따지군 하는 바람에 그 때마다 영월이와 순자는 얼굴이 빨개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된 셈인지 영월이와 순자의 옷차림은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순임이는 막 안타까왔습니다.

그는 생각다 못 해 분단 위원회에서 애타는 이야기를 늘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반 모임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영월이와 순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옳아! 영월이와 순자에겐 무슨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난 자세히 알아 보지도 않고 괜히 그들을 동무들 앞에서 따지기만 했어, 내가 너무 경솔해.) 순임이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다음 날 순임이는 반장과 함께 영월이와 순자네 집을 찾아 갔습니다.

가서 알아 보니 영월이와 순자에게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늘 어머니가 옷을 대려 주군 했는데 직장에 어머니가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자주 대려 주지 못 했습니다.

그런 데다 그 애들은 그 애들 대로 제 손으로 할 줄 모른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아 속으로만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월이와 순자의 말을 듣는 순임이는 얼굴이 확 달아 올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순임이도 아직은 늘 어머니가 대려 주는 옷을 입었을 뿐 제 손으로 손질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순임이는 더욱더 량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난 공연히 영월이와 순자에게 늘 짜증만 부리군 했어.) 이렇게 혼자 생각으로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다음 순간 순임이는 《분단 위원회는 소년단원들에게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한 소년단 규정 내용을 다시 한 번 더듬어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순임이에게는 문 정숙, 백 광선과 같은 수 많은 모범 소년단원들의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순임이는 다음 날부터 영월이와 순자가 옷차림을 단정히 하도록 힘껏 도우리라 결심했습니다.

순임이는 분단에서 옷차림이 제일 단정하여 늘 칭찬을 받는 진자네 집에 찾아 가서 그가 어떻게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진자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 가면 반드시 가름옷을 갈아 입고 교복을 차근차근 대려 두었다가 다음 날 학교에 올 때 입고 오는 것이였습니다.

순임이도 진자의 모범을 따라 그 대로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영월이와 순자를 도와 나섰습니다.

영월이와 순자는 집에 돌아 가면 어머니의 바쁜 일'손을 돕느라고 물도 길어 드리고 아이도 보아 드리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안 순임이는 학교에서 돌아 오면 반장 동무와 함께 영월이와 순자네 집에 찾아 가 일'손도 돕고 옷차림도



단정히 하도록 차근차근 도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니 자기가 모든 것을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옷을 빨래하는 방법이며 널어 말리울 때 손질하는 방법을 어머니들에게서 배워 가지고는 그 애들과 같이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치마 주름을 대릴 때는 무엇부터 어떻게 대리며 제일 대리기 힘들다는 팔'소매와 어깨를 대릴 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옷을 매일 대리기 곤난할 때는 물을 약간 뿌려 반듯이 펴 놓고 깔개를 깔고 자는 방법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임이는 반 동무들을 친절하게 도와 주면서 자기의 모범으로 례절을 지키는 법을 배워 주었습니다.

영월이와 순자는 순임이의 친근한 방조를 받으면서부터 제 손으로 옷을 깨끗이 빨아서는 대림질까지 반듯하게 해 입게 되였습니다.

영월이와 순자의 옷은 언제나 치마 주름이 곱게 잡히였고 깨끗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예요. 옷차림이 단정한 이들은 례의 도덕도 더 잘 지키게 되여 마을 어른들에게서 칭찬 받는 소년단원이 되였습니다.

순임이의 이러한 모범은 지난날 분단 위원이라고 해서 분단 동무들에게 무엇이든지 시키기만 좋아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친절하게 도와 줄 줄 모르던 위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분단 위원회는 분단 동무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진실로 도와 주면서 모든 일을 조직하고 앞장에서 이끌어 가는 그야말로 스스로 움직이는 분단 위원회가 되였습니다.

## 《바르》란 무엇일가요?

우리들은 아침 저녁 라지오를 통해 기상 예보를 들을 때 바다에서 파도가 몇 바르로 일겠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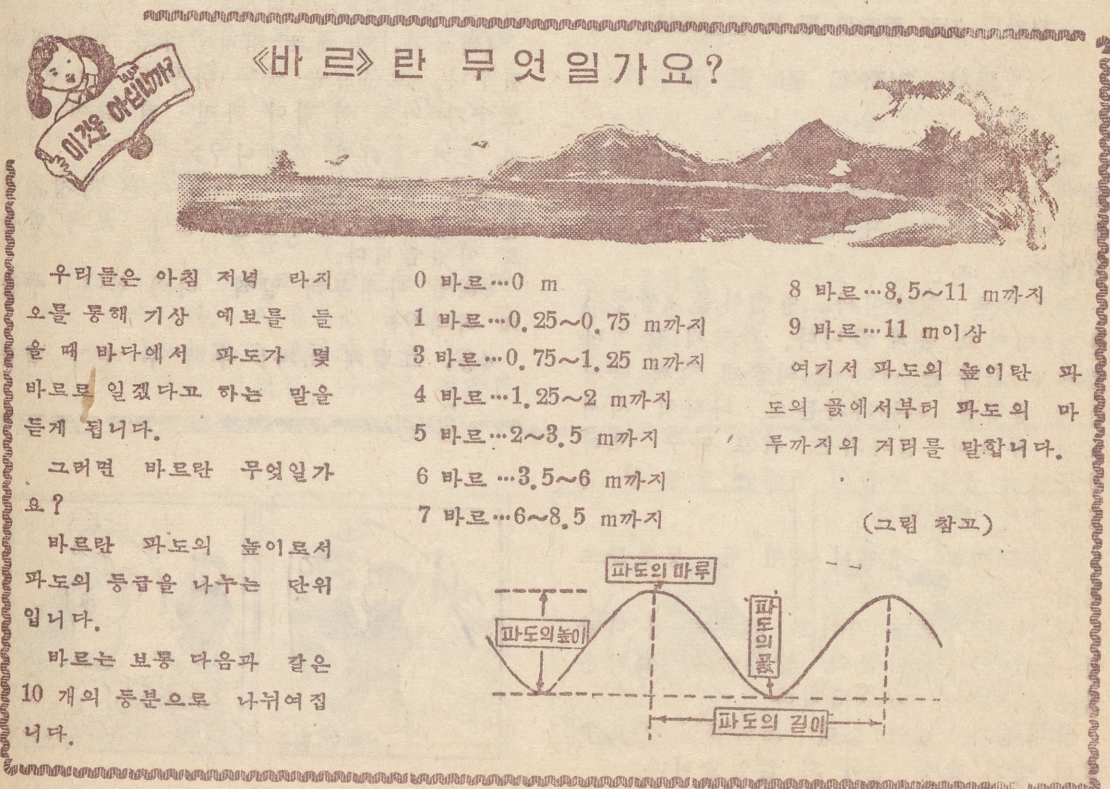
그러면 바르란 무엇일가요?

바르란 파도의 높이로서 파도의 등급을 나누는 단위입니다.

바르는 보통 다음과 같은 10 개의 등분으로 나뉘여집니다.

0 바르…0 m
1 바르…0.25~0.75 m까지
3 바르…0.75~1.25 m까지
4 바르…1.25~2 m까지
5 바르…2~3.5 m까지
6 바르…3.5~6 m까지
7 바르…6~8.5 m까지
8 바르…8.5~11 m까지
9 바르…11 m이상

여기서 파도의 높이란 파도의 골에서부터 파도의 마루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림 참고)

# 현숙이와 영순이

—자강도 강계 중학교 제 13 분단에서 —

본사 기자 김 준 규

따뜻한 봄날 두 반 동무들이 학교에서 돌아 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다정한 현숙이네 반 동무들과 영순이네 반 동무들입니다.

동무들은 현숙이와 영순이를 《쌍둥이 반장》이라고 불러 줍니다. 학교에 갈 때나 집으로 돌아 올 때나 늘 의좋게 함께 다니며 반 생활을 의논하거든요. 나란이 서서 노래 부르며 걷다가는 서로 마주 보며 방긋방긋 웃는 이들의 뒤에는 항상 두 반 동무들이 따릅니다.

반장들끼리 친하니 자연 반 동무들도 친합니다.

길'가의 가로수 사이로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 와 아이들의 앞가슴에 드리운 붉은 넥타이를 건드립니다.

어디선가 날아 오던 제비들이 가로수 넘어 전기'줄에 날아 와 앉았습니다.

《제비가 왔구나!》

《제비가 왔구나!》 발'길을 멈춘 아이들은 손'벽을 치며 좋아합니다.

이 때 현숙이는 지난 해 가을 록화 사업소 아저씨들과 강계 시내 여러 기관 아저씨들이 떠다 심은 푸라다나스나무를 눈주어 살펴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로수들에는 다 파릇파릇한 움이 트는데 푸라다나스나무에만은 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숙이는 나무'가지를 약간 휘여 보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현숙이는 흠칫 놀랐습니다. 꺾어진 자리를 보니 물'기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애들아, 이 나무가 웬 일일가?》 현숙이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어디론가 바삐 날아 가는 제비를 보고 있던 아이들은 모두 현숙이에게 쏠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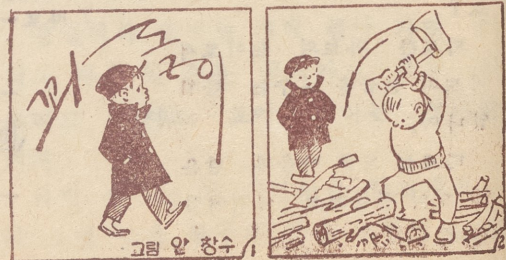
《밑뿌리에 물'기가 있는가 보자.》

동무들은 모두 서둘러 밑뿌리를 파 보았습니다.

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나무가 여러 그루였습니다. 그냥 두면 언제 움이 터 자랄지 모릅니다.

《애들아, 이 대로 내버렸다간 말라 버리겠구나. 드문드문 죽은 나무가 있으면 가로수가 마치 이'발이 빠진 것 같아 거리가 보기 흉하지 않겠니?》

식물 연구 소조원인 현숙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돌아 보며 말을 또 이었습니다.

《래일 아침부터 일찍 나와 물을 주는 게 어때?》

《응, 그렇게 하자! 우리 두 반의 힘을 합치면 무엇인들 못 하겠니.》 영순이도 이러며 찬성해 나섰습니다.

《좋아!》, 《좋아!》 두 반 동무들은 한꺼번에 손'벽을 쳤습니다.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니기 위하여 힘 쓰는 이들은 한 포기의 풀, 한 그루의 나무도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곧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잇닿아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반 동무들은 저마다 바께쯔를 들고 중앙 도로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물을 떠다 방금 뿌리려는데 《너희들이 웬 일이냐?》 하며 한 아저씨가 다가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는 록화 사업소에 계시는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이 나무가 살아 날 수 있을가요?》

《참 너희들은 기특하다. 암, 살구 말구, 속담에 정성이 지극하면 돌 우에 꽃을 피운다고 했지.》

두 반 동무들은 한 그루, 두 그루 물을 주어 나갔습니다. 움이 틀 그 날을 생각하면서 두 반 동무들은 날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꾸준히 나무들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분단에서 맡은 일도 하고, 그 날 배운 과목의 공부도 어김 없이 하면서 현숙이네는 여간만 바삐 지내지 않았습니다.

현숙이는 반실에서 헤여지면 그 길로 인풍교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밤마다 나와 물을 적게 주었다고 생각되는 나무에 더 주군 했습니다. 아침에는 언제나 남먼저 움이 나오는가도 보았습니다.

두 반 동무들의 이러한 나날은 계속되여 열흘이 가까와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는 움은 좀처럼 트지 않았습니다.

영순이는 암만 해도 헛'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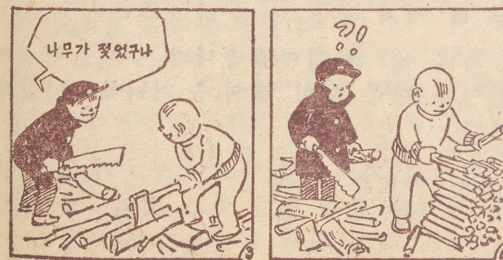
《현숙아, 딴 일을 하는 게 어때?》 그는 이즘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하려다가 참군 하였습니다.

그 날도 두 반 동무들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드디여 영순이는 마음 먹고 있던 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하던 걸 하다 말겠니, 며칠만 더 참아 보자.》 참을성이 없는 영순이의 성미를 아는 현숙이는 그를 타일렀습니다. 영순이는 머뭇거리며 더 다른 말을 못 하였습니다.

사실 영순이는 희망이 없는 일을 공연히

##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

딸꾹질이 나면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겠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자기 놀라게 하면 쉽게 멎습니다.

입을 다물고 코를 쥐여 잠시 숨을 멈추게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해도 쉽게 멎습니다.

(만)(화)

할 바에는 그새 다른 좋은 일을 그 만큼 힘들게 했으면 벌써 모범 반이라고 칭찬을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은근히 딴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열흘이 지났지만 움은 틀 념을 안 했습니다. 영순이는 더 참지 못 하였습니다. 그는 동무들이 움이 트는가 보고 물 길으러 가려는데 맥 없이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젠 다 틀렸어, 다른 일을 했더면 단벽보에 칭찬이 나붙은 지도 오랬겠다.》

현숙이는 놀랐습니다. 영순이가 이런 일을 칭찬이나 받기 위해 해 온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숙이는 영순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새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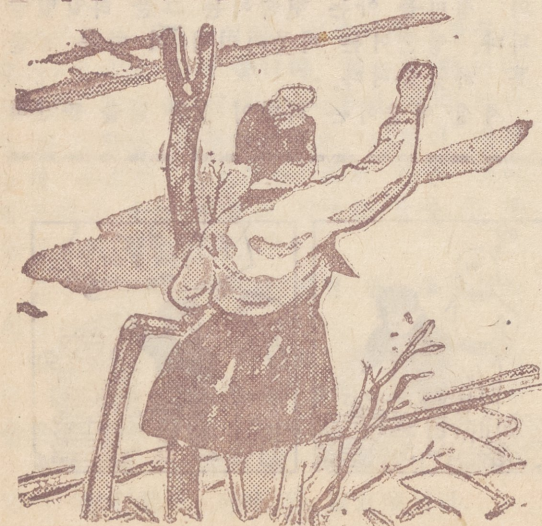
《그렇게 성을 낼 거야 뭐 있니?》

발끈 성을 낸 것은 오히려 영순이였습니다. 그는 물 바께쯔를 들고 휭 하니 가 버렸습니다.

(너무 지나쳤구나.) 하고 뉘우치며 현숙이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 보았습니다.

반 동무들도 멍 하니 서서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일 없어. 우린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따르는 소년단원이 아니냐. 무슨 일이건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야 해.》

현숙이는 이내 즐거운 얼굴을 해 가지고 남은 동무들을 타일렀습니다.

현숙이는 저녁에 반실에서 공부를 끝내고 돌아 와 자리에 누웠지만 이런 저런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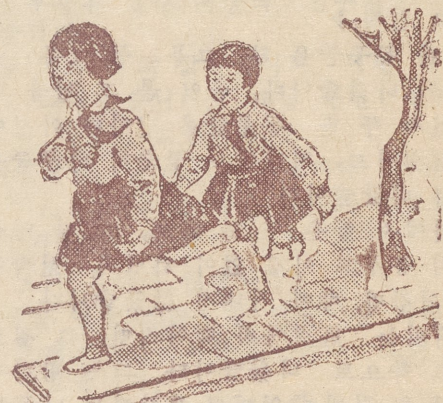
그의 눈앞에는 자꾸만 푸라다나스나무가 얼른거렸습니다.

《애야, 우릴 빨리 자라게 해 주렴. 어서 빨리 가지를 뻗치고 키를 자래워 이 거리를 아름답게 하고 싶어.》 나무들은 현숙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른 새벽 스피카 소리에 선잠을 깬 그는 거리에 또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영순이네 반 동무들은 한 동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날 학교에서 있은 일입니다. 영순이는 복도를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며 하는 그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넌 영순이를 어떻게 생각하니?》

《난 좋은 애라고 생각해. 난 그 애하구 친해, 근데 요전엔 내가 잘못 했어. 난 그 애한테 사과하려고 생각해.》

아이들이 주고 받는 이런 말'소리를 그는 더 서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였습니다. 현숙이네는 전이나 다름 없이 일찌기 거리에 나섰습니다.

인풍교 가까이에 이르니 누군가 벌써 나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였습니다.

《어느 애가 벌써 나왔을가?》

현숙이네 반 동무들은 다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순이구나!》

《영순아!》 아이들은 곧 알아 보고 달려 왔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오래 동안 헤여졌던 동무를 만났을 때처럼 좋아하였습니다.

《움이 텄구나.》 영순이는 누구에게라 없이 한 푸라다나스나무를 바라 보며 말하였습니다.

《야!》

파릇파릇 터 올라 오는 움을 본 아이들은 너무도 좋아 영순이를 마구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가 마치 지난 밤새껏 나와 움을 티우기라도 한 것처럼…

이러는 바람에 영순이는 지나 간 일들을 까맣게 잊어 버렸습니다.

이 때 《현숙아!》, 《영순아!》 하고 부르며 어제 분단 속보를 읽은 다른 반 동무들이 꾸역꾸역 모여 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 며칠 동안 따로 갈라져 다니던 영순이네 반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록화 사업소 아저씨도 기뻐하시며 걸어 오시였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돌우에 꽃을 피웠구나.》 아저씨는 좋아 어쩔 줄 모르는 현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숙이네 반 동무들은 비단 나무에서 움만 트게 한 것이 아니라 영순이의 가슴속에도 아름다운 마음의 움이 돋아나게 해 준 것이 아닐가요?…

× ×

이것은 강계 중학교 13 분단에서 2 년전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그 후 분단 동무들은 현숙이와 영순이네 반 동무들을 도와 푸라다나스나무들을 한 그루도 죽이지 않고 다른 가로수들처럼 무럭무럭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 후 현숙이네 분단은 《모범 분단》이 되였고, 《2 중 모범 분단》의 영예까지 지니였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 소리는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릴가요?

동무들은 물체가 진동하는 데서 소리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소리가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릴가요?

그것은 진동하는 물체의 곁에 있는 공기가 이 진동을 받아서 진동하게 되고 이 공기의 진동이 퍼져 와 우리의 귀'속에 있는 고막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 고막이 받은 진동은 우리의 신경을 통해 뇌에 알려져서 우리는 그를 소리로써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동하는 물체와 우리 귀 사이에 공기가 없으면 물체는 진동하더라도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 합니다.

소리는 다만 공기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나 쇠 또는 돌과 땅 같은 물질에 의해서도 전달됩니다. 물 속에 들어 가서 돌을 두 개 쥐고 서로 부딪치면 딱딱 소리가 잘 들립니다. 땅에다 귀를 대여도 먼 곳에서 오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답니다.

## 소리는 얼마나 빠를가요?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말을 주고 받을 때에는 소리의 속도가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우에 올라 가서 먼 곳에서 달리는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들어 보면 소리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못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기차가 기적을 울릴 때 내는 흰 김이 보인 후 한참만에야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 소리가 우리 귀까지 전달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리는 얼마나 빠를가요?

소리는 여러 가지 물질에 따라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물질 속에서 소리의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0도의 공기 속에서 …332 m
15도의 공기 속에서…340 m
물 속에서 …………1,450 m
강철 속에서 ………5,000 m
유리 속에서 ………5,500 m

# 학습 문제 풀이

### 국어 (인민반)

1) 다음의 단어를 가지고 서로 뜻이 다른 단문 3 개를 지어 보십시오.

○질질

2) 다음의 문장에서 틀린 점이 있으면 고처 보십시오.

○집을 짖다. ○낯을 쓴다.
○개가 질다. ⊙낮이 밝다.
○글을 짖다. ○낮이 희다.
○색갈이 짖다.

### 국어 (초중)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형님과 누나들, 안녕히들 계십시오. 일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십시요! 조국은 살아 있고 미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의 어머니 조국이여, 부디 잘 있으라! 비록 조국에서 수천리 이 곳 북만에서 죽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조국의 품'속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최후의 순간에도 나의 심장은 오직 조국으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나의 위대한 조국이여, 공산당이여, 나는 그대의 아들입니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세계의 청춘입니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조국의 광명한 미래입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처럼 웃으면서 죽습니다.》

이상의 문장을 읽고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①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②미래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③《공산주의! 이것은 세계의 청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④아래의 단어들은 그 의미가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토하다 (오로지 (똑바로
 뱉다 　오직 　곧바로

⑤이 문장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 《학습 문제 풀이》 해답

### 국어 (인민반)

1. —여우는 꼬리를 질질 끌면서 어디로 가 버렸다.
—약속한 날'자를 질질 끌면 안 된다.
—침을 질질 흘리다.

2. 집을 짓다. 낫을 쓴다.
개가 짖다. 낮이 밝다.
글을 짓다. 낯이 희다.
색갈이 짙다.

### 국어 (초중)

1. 혁명 투사 박 길송 동지가 한 말.

2. 미래란 앞날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3. 청춘이란 젊은 시절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청춘처럼 늙지 않는다는 말이다.

4. 토하다—음식물을 게우다.
뱉다—입 속에 있는 것을 불어 내보내다.
—속에서 세차게 내미는 힘으로 기체, 액체 같은 것을 밖으로 내여보내 헤뜨린다.
오로지—오직 한 방향으로.
오직—여럿 가운데서 단 하나만이.
똑바로—굽은 데가 없이 아주 바르게.
—조금의 거짓도 없이 바른 대로.
곧바로—한 방향을 가리킴.

⑤당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충실성,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 당과 조국과 혁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공산주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 산수(초중 1 학년)

$$3^3-3-\frac{3}{33}=27-3-\frac{1}{11}=23\frac{10}{11}$$



# 학습 문제 풀이

### 산수(초중 1 학년)

수'자 3을 6 번 리용하고 산법 기호로 련결시켜 $23\frac{10}{11}$이 되게 하십시오.

### 기하 (초중 2 학년)

시계는 24 시간 쉬임 없이 돌아 갑니다.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하루 몇 번 몇 시에서 직각으로 되겠습니까?

### 지리 (초중 2 학년)

아래의 문장에서 □ 안에 어느 주의 이름이 쓰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 주는 아세아주의 서남쪽 구라파주의 남쪽에 있는 주로써 면적은 3,030만 $km^2$이다.

①인구는 얼마인가?

②이 주에서 2 차 대전 후 현재까지 독립을 선포한 나라 수는 얼마인가?

③금년에 들어 와 독립을 선포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④이 주에서 제일 큰 강과 제일 큰 사막을 들고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 물리 (초중 2학년)

철수는 물리 학습을 하는 과정에 좋은 경험을 하나 알아 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든지 《단위》가 무엇인가만 알면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단위》만 알고 어떻게 공식을 알아 냈을가요.

그럼 일의 단위 kg중m, 비중의 단위 g중/$cm^3$으로 해당한 단위의 공식을 만드시오.

### 력사 (초중 2학년)

15 세기 우리 나라의 문화 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훈민 정음》을 만든 것이였다.

《훈민 정음》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대답

## 《학습 문제 풀이》 해답

### 기하 초중 2학년)

3시, 9시, 15시, 21시.

### 지리(초중 2학년)

아프리카주

1. 인구—2억 2,000만
2. 2 차 대전 후 현재까지 독립을 쟁취한 나라—34 개국.
3. 1964년 1월 12일 독립한 나라—잔지바르.
4. 제일 큰 강—나일강 (아랍 련합 공화국). 사하라사막 (아프리카 북부.)

### 물리 (초중 2 학년)

일의 단위는 kg중m이다. kg중은 힘의 단위이고 m는 거리의 단위이다. 때문에 공식은 일=힘×거리로 성립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식 $A=F\cdot S$

비중의 단위는 $\frac{g중}{cm^3}$ 이다.

이것은 $\frac{무게\ 단위}{체적\ 단위}$란 말과 같다. 즉 $\frac{무게}{체적}$와 같은 것이다.

때문에 비중$=\frac{무게}{체적}$이란 공식인 것을 알 수 있다.

공식 $D=\frac{P}{V}$

### 력사(초중 2 학년)

1. 세종왕을 비롯하여 정 린지, 신 숙주, 성 삼문, 최 항, 박 팽년.

2. 1444년 1월

3. 자음 17 자, 모음 11 자.

4.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고대의 고유 글'자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찾아 보기는 어려우나 고조선 때부터 문'자를 써 왔다.

그러나 한'자는 조선말을 적는 글'자로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리두》란 것을 만들었다.

《리두》라는 것은 한문의 음과 뜻을 리용하여 만든 조선어로 표시하는 법의 한 가지이다.

《리두》는 7 세기 말 경 신라 사람 설 총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5. 인민들에게 옳은 발음을 가르쳐 준다는 말.

### 대수(초중 3 학년)

어떤 식이든지 0으로의 제'법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x=y$, $x-y=0$ 이므로,

량변을 $x-y$로 제한다는 것은

## 학습 문제 풀이

하시오.

①훈민 정음은 어떠한 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는가?

②어느 때인가?

③훈민 정음은 자음, 모음 하여 각각 몇 자인가?

④훈민 정음이 나오기 전 우리 나라에는 어떤 글이 있었는가?

⑤훈민 정음이란 무슨 뜻인가?

**대수 (초중 3 학년)**

$x=y(x\neq0)$인 경우에 $x=y$가 성립된다. 량변을 2승하면 $x^2=y^2$이 된다.

량변에서 $y^2$을 감하면 $x^2-y^2=y^2-y^2$이 된다. 이것을 인수 분해하면 $(x+y)(x-y)=0$이 된다. 량변을 $x-y$로 제하면 $\frac{(x+y)(x-y)}{x-y}=\frac{0}{x-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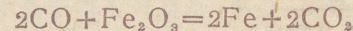
$x+y=0$

그런데 조건에 의하여 $x+y\neq0$이다.

때문에 $x+y=0$이라는 우의 식은 모순이다. 이 모순이 어디로부터 생기였겠는가?

**화학 (초중 3 학년)**

①다음의 화학 방정식이 옳게 작성되였습니까?

$2CO+Fe_2O_3=2Fe+2CO_2$

②우리 나라에서는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기 위해 $CaCN_2$(석회질소), 카바이트재 또는 $CaO$(생석회), $Ca(OH)_2$(소석회)를 뿌립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가요?

**물리 (초중 3 학년)**

영철이는 학교에서 배운 물리 지식을 리용하여 그림과 같은 자동 스위치(그림은 아래 해답을 보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스위치는 열학과 전기학의 지식을 다 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고 이 스위치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작용하겠는가를 설명하십시오.

### 《학습 문제 풀이》 해답

0으로 제한다는 것과 같으므로 거기로부터 모순이 생겼다.

**화학(초중 3 학년)**

① $3CO+Fe_2O_3=2Fe+3CO_2$

②화학 비료인 류산암모늄을 시비하면 식물은 암모늄만을 흡수하고 산기는 토양중에 남게 되며 계속 이 비료만 시비하면 땅은 점점 산성화된다.

$\underline{(NH_4)_2}$ $\underline{SO_4\downarrow}$

(식물에 흡수), (류산'기는 땅에 남는다)

그럼 산성화된 땅은 왜 곡식이 잘 안 되는가?

①H, Al, Mn 등의 원소가 작물에 흡수되면 세포들이 약하게 되여 식물이 수분이나 비료 등 영양물을 흡수하는 힘이 약해진다.

②산성화된 토양에는 린산이 아주 적게 된다.

③산성 토양에는 미생물이 잘 살지 못하므로 땅이 비옥하지 못하게 된다.

**물리 (초중 3 학년)**

스위치 ①은 용수철 ④의 작용에 의하여 항상 열리려고 하지만 용수철 ⑤의 작용에 의하여 스위치를 못 열리게 하는 턱 ②에 걸리여 안 열리게 되여 있다.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동과 철로 된 합판 우에 감긴 코일이 쥴렌츠의 법칙에 의하여 가열되고, 따라서 합판도 가열되여 늘어 나게 된다. 그런데 동이 철보다 많이 늘어 나므로 합판은 아래로 구부러지고 ⑧과 ⑨가 붙게 되여 코일 ③에 전류가 흘러 자석이 된다. 동시에 이 때 자석이 철편 ⑥을 당기기 때문에 턱 ②가 벗겨진다. 그리고 이 때 용수철 ④의 작용에 따라 스위치는 열리고 사고는 방지된다.



## 과외 교실

# 식물은 어떻게 《자손》들을 남길가요

김 영 섭

봄이 왔습니다. 하얗게 쌓였던 들판의 눈은 녹고 검은 땅에서는 파릇파릇 새 싹들이 돋아 나고 나무'가지에서는 새 움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들판에 나가 자세히 관찰하여 봅시다. 작년까지만 해도 풀이 없던 곳에 새로 풀들이 돋아 나고 있는 곳은 없는지요?

그러면 이 식물들은 어디서 왔을가요?

누가 가져다 심었을가요?

식물들이 자기의 《자손》들을 퍼뜨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물들이 어떻게 자기 《자손》들을 퍼뜨리는가를 알아 보기로 합시다.

## 《멀리 뛰기 선수》들

동무들은 해'볕이 잘 쪼이는 여름이나 가을 날 대낮에 꽃밭 속에서 《팍 팍》 하고 무엇인가 튀는듯한 소리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어디서 나는 무슨 소리일가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동무들은 그것이 곧 봉선화의 열매가 터지면서 내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봉선화는 여물면 자기 《자손》들을 남기기 위해 씨가 들어 있는 열매를 터친답니다. 이 때 열매 안에 들어 있던 씨들은 멀리 뛰기 경쟁이나 하듯 사방으로 흩어진답니다.

얼마나 멀리 뛰는가구요? 무려 자기 키의 수십, 수백 배나 되게 어미나무에서 1m 이상이나 뛰지요. 이리하여 자기 《자손》들을 멀리에까지 퍼뜨린답니다. 만약 이런 재간이 없다고 하면 씨들은 한 자리에 소복히 쌓여서 미처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봉선화는 그것을 아는 모양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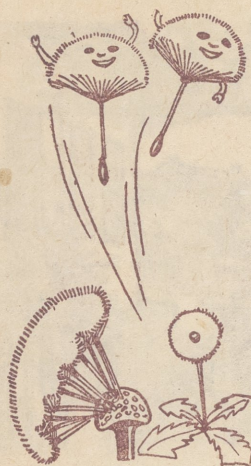
이런 방법으로 《자손》을 퍼뜨리는 식물은 이 밖에도 병아리꽃, 채송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락하산을 타고

동무들은 아마 식물의 《자손》들인 씨가 하늘을 날은다면 《흥, 새나 비행기도 아닌데 어떻게 하늘을 난담.》 하고 곧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식물의 《자손》들이 《비행기》나 《락하산》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답니다.

늦은 봄이나 여름철 들판에 나가 자세히 하늘을 살펴 보십시오. 동무들은 흰 눈처럼 하늘을 나는 수 많은 이상한 《락하산병》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풀들의 씨들일가요?

우선 꽃이 진 민들레나 소뱅이를 찾아 보십시오. 그러면 동무들은 락하산처럼 생긴 수 많은 씨들이 날아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선들 바람만 불어도 《어머니》와 작별하고 멀고 먼 곳으로 《려행》을 떠난답니다.

이처럼 바람을 타고 《려행》하는 식물의 종자는 이 외에도 뽀뿌라나무, 네군도 단풍나무, 느릅나무씨 등 수 많이 있답니다.

## 남의 도움을 받아서

동무들이 여름철에 동식물 채집을 위해 산과 들을 다니다가 쉴참이면 옷을 살펴 보십시오.

동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식물들로부터 많은 열매를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식물들은 동무들에게 자기의 《자손》들을 《선물》하였을가요? 천만에지요.

진득찰, 도깨비바늘, 짚신나물, 도꼬마리 등 여러 식물들은 자기의 《자손》을 먼 곳에 세간을 내 보내기 위해 항상 《방조자》를 찾는답니다. 그러다가 자기 옆을 지나는 사람이나 짐승만 만나면 체면도 없이 어느 새 슬쩍 달라붙습니다.

더욱 재미 있는 것은 그런 식물들은 자기의 《방조자》를 만나기만 하면 곧 달라붙을 수 있게 묘한 갈구리와 가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식물들은 동무들에게 《선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라붙어 온 것이였지요. 그러기 동무들이 아무리 꾸중을 한대도 옷에 붙은 자기 《자손》들을 여기 저기 뜯어 버려 주기만 하면 그들은 오히려 고맙게 여긴답니다.

## 강이나 바다'물을 따라 《헤염치는 선수》들

동무들은 가을에 강물을 떠서 자세히 관찰을 하여 보십시오. 많은 식물의 《수영선수》들과 만날 것입니다. 이들은 개울이나 강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무들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어미나무》는 《자손》—씨가 생기면 이들을 이렇게 물에 띄워 먼 곳에까지 세간을 내보낸답니다. 그들은 물 우를 헤염쳐 수천 리, 수만 리까지 간답니다. 그리하여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머나먼 《려행》들을 한답니다.

남양 지방을 탐험한 어떤 과학자의 관찰에 의하면 바다'물 가운데는 97 종의 각종 식물들의 씨들이 떠 있었다고 합니다.

## 잎과 줄기에서 생긴 《자손》들

어떤 식물들은 잎과 줄기로도 《자손》을 남긴답니다.

우리는 흔히 식물의 잎은 그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만들어 줄기나 뿌리에 보내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물의 잎은 이런 역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을 남기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리하여 베고니야 같은 것은 잎을 따서 심으면 훌륭히 자라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줄기로 번식하는 나무는 유선화, 뽕나무, 뽀뿌라나무, 황철나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가지만 잘라서 습기 있는 땅에 꽂아 두어도 뿌리가 내려서 훌륭히 자라는 것입니다.

잎이나 줄기로도 자기의 《자손》을 남기는 재간을 가진 식물들이 세상에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동무들은 올여름에 이 모든 것을 더 많이 관찰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약 50만 종의 식물(우리 나라에는 3,600여 종)이 있는

데 그 식물들은 모두 제각기 자기 《자손》들을 번식시키는 재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 날'짐승들의 모이로 되였다가…

우리들은 산이나 들판에서 어떤 짐승이나 새들이 똥을 싼 곳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새들이 물어다 심어 놓은 것일가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일가요?

세상에는 수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식물들은 열매가 아주 고운 색갈과 맛을 가졌는가 하면 또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물의 씨들은 새들의 좋은 음식으로 된답니다.

이'발이 없는 새들은 이런 열매를 통채로 삼킵니다. 그러나 열매 속에 있는 씨는 굳기 때문에 새나 짐승들의 배에 들어갔어도 소화가 되지 못한 채 그 대로 똥과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학자들이 조사한 데 의하면 어떤 새의 똥에는 12 가지 식물의 종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나 짐승들의 소화기를 통해 멀리에까지 《려행》하는 식물의 《자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식물들인가구요?

마가목, 까치밥나무 열매 등입니다. 이 외에도 많을 것인데 동무들이 올여름에 어디 관찰해 보십시오.

## 외국에 《손님》으로 가는 식물들

동무들은 식물의 종자들도 기차, 배, 비행기 등을 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로 《려행》을 한다면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식물의 종자들은 우연히 《좋은》 기회를 만나 《려행》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가구요? 그것은 외국으로 려행하는 사람들의 짐짝이나 또 무역선의 화물에 묻어서 아주 편안하게 먼 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에 이런 방법으로 외국에서 《손님》으로 온 식물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슨 식물인가구요? 우리가 흔히 보는 달맞이꽃이 이런 방법으로 외국에서 《손님》으로 와 이제는 우리 나라 식물로 된 것이랍니다.

# 척척 할아버지

영남, 철수, 만수—할아버지,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척척 할아버지—오냐, 참 오래 간만에 너희들과 만났구나. 모두 그 동안 공부를 잘 했느냐?

일동—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영남—할아버지, 한 가지 물어 볼 문제가 있어서 찾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들판으로 봄날의 자연 관찰을 나갔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지종지종 노래하는 종달새를 보고 머리에 있는 것이 뿔이라는 애도 있고, 아니라는 애도 있고, 왜 종달새는 봄철에만 노래하는 것일가 하고 한참이나 토론하였는데 누구도 아는 동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 왔습니다.

뿔종달새

척척 할아버지—그건 참 흥미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너희들이 올 줄 알았다. 요새 봄철이 돼서 너희들이 자연 관찰도 하고 새 둥지도 올리고 하는 일이 많을테니까, 그러느라면 의문되는 것도 많을 것이거든.

영남—정말 할아버지는 우리들의 마음속까지 척척 잘 알아 마치시누만요.

척척 할아버지—그러기 척척 할아버지가 아니냐, 그럼 이야기를 해 보자.

아까 너희들이 본 건 뿔종다리다.



영남—그럼 종다리에는 뿔이 있는 것도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그렇구 말구, 세계적으로는 120 종 가량의 종다리가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뿔종다리와 뿔이 없는 종다리까지 합하여 다섯 종이 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보는 것이 뿔종다리지.

철수—할아버지, 종달새의 뿔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 뿔로도 소처럼 막 받을 수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허허…종달새가 무슨 황소인 줄 아느냐, 그것은 진짜 뿔이 아니란다. 머리에 있는 털이 꼿꼿이 일어 서서 마치 뿔처럼 보일 따름이지. 그 뿔의 크기는 약 20 mm 정도인데 암컷의 뿔은 수컷의 뿔보다 약간 작단다.

만수—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종다리가 왜 봄에만 나타납니까? 겨울에는 제비처럼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 있다 오나요?

척척 할아버지—그건 참 흥미 있는 문제이다. 종달새는 봄에만 하늘 높이 떠서 지종지종 노래를 한단다.

철수—할아버지, 그럼 종달새는 봄에만 우리 나라에 와 있다가 여름에는 딴 데로 갑니까?

척척 할아버지—아니다. 종다리는 사철 우리 나라에서 산다. 그러나 봄철(3월 하순부터 4월)에만 하늘 높이 떠서 노래를 부른단다. 그러니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철수—할아버지, 종다리는 왜 봄철에만 노래 부르나요?

척척 할아버지—그걸 이야기하자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3~4월이란 동물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까는 즉 번식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꿩은 《결혼 장식》을 하고 봄이면 《꿱꿱》 울고 종다리도 암컷과 수컷이 쌍을 짓고 둥지를 트느라고 아주 고운 소리로 지종지종 노래하며 날게 된단다. 이를 테면 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셈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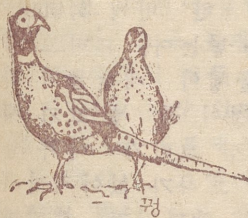
아이들—하하하.

척척 할아버지—그래야 동물들도 번식을 하지, 종다리는 흔히 밀밭골이나 들판의 큰 쑥 포기 밑에 둥지를 틀고 4~6 개의 알을 낳는다. 그리고는 암컷과 수컷이 교대로 알을 안아 주는데 대체로 12~13 일만에 새끼가 까난단다. 새끼가 까나서 9~11 일이 지나면 날게 된다. 종다리는 이렇게 번식을 끝내면 더는 하늘 높이 떠서 노래를 하지 않게 된다.

영남—그러면 종다리는 한 해에 한 번만 번식합니까?

척척 할아버지—아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대개 두 번 새끼를 깐단다. 그러면 더는 사랑을 속삭일 필요가 없게 되지, 이렇게 되면 일년 내내 벌레만 잡아 먹으면서 산단다.

꿩

철수—그런데 아까 할아버지가 꿩의 《결혼 장식》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나요?

척척 할아버지—꿩의 《결혼 장식》이란 장끼(수꿩)가 아주 아름다와지는 것을 말한다.

봄이 되면 장끼란 놈은 부리와 볼, 그리고 다리 등이 아주 곱게 붉어지는데 이렇게 곱게 돼 가지고는 《꿱꿱》 소리를 지르며 암컷을 찾아 쌍을 짓는단다. 이런 것은 꿩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거의다 그렇단다. 우리가 양어창에서 기르는 칠색 송어도 봄이 되면 입, 눈, 몸 등에 곱게 《결혼 장식》을 한단다.

영남—그런데 봄철에 꿩을 잡은 것을 보면 가슴과 배의 털이 모두 빠져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척척 할아버지—아니, 봄철에 꿩을 잡다니?! 봄철에 짐승 한 마리를 잡는다는 것은 가을철에 수십 마리의 짐승을 잡는 것과 같단다.

우리들은 봄이 오면 유익한 짐승들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해 주어야 한다. 너희들은 분단이나 반에서 의논하고 새들이 찾아 와 둥지를 틀고 번식하도록 인공 새 둥지도 올려 주어야 한다.

영남—아닙니다. 그 전에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척척 할아버지—그럼 그렇겠지.

만수—우리 분단에선 오는 일요일에 인공 새 둥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아무렴, 소년단원들이 그래야지. 그러면 영남이가 물어 본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

짐승들이 봄이면 가슴팍과 배의 털을 뽑는 현상은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암탉에서도 볼 수 있단다. 그것은 새끼를 까려고 알을 품을 때 가슴이나 배에 털이 있으면 그 만큼 자기 몸의 온도가 알에 닿는데 방해가 될 것이 아니냐? 알을 더 따스하게 해서 새끼를 빨리 깨우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영남—야! 할아버진 정말 모르는 것이 없네.

철수—할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할아버지도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뻐꾹새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는데 사실입니까?

뻐꾸기

척척 할아버지—허허, 내가 대답을 못 해 줄가 봐 걱정이 되느냐? 뻐꾸기란 놈은 자기가 낳은 알을 자기가 깨울 줄 모른단다. 그래 이 놈은 봄이면 할미새, 딱새, 박새 둥지에다 《도적 알》을 한두 개 낳는단다. 뻐꾸기는 몸'집은 크지만 알은 작게 낳는단다. 재미 있는 것은 할미새, 박새, 딱새들이 뻐꾸기의 알이 자기의 알인 줄만 알고 새끼를 깨운 후에도 열심히 모이까지 주어다 먹이는 거란다. 게다가 뻐꾸기 알은 보통 10~15 일씩 걸리는 다른 새 알보다 2~3 일 먼저 까나서는 다른 알을 다 밀어 내치고 제놈들만 모이를 ·받아 먹는단다. 그러니 뻐꾸기한테 《침략》을 당한 새는 제 새끼도 다 잃고 마는 셈이지. 아마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 새끼를 까 기르는 새란 420여 종이나 되는 우리 나라의 새들과 5,500여 종이나 넘는 세계의 새들 중에도 그 놈 하나 뿐일 게다.

철수—참 재미 있습니다. 봄철은 새들의 번식기가 돼서 그렇게 다른 계절보다 새 소리가 더 많은 것이지요?

척척 할아버지—옳다. 그러나 뻐꾸기는 그렇게 미욱한 것을 하지만 해로운 털벌레와 송충이를 잡아 먹어 산림에 리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 소리는 사람들에게 봄을 알리는 《신호수》란다.

만수—할아버지, 피꼴이는 봄을 알리는 《신호수》가 못 되나요?

피꼴새

척척 할아버지—피꼴이는 좀 늦게 온단다. 중국 남부, 말타이 반도, 인도 등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5월 경에 우리 나라로 오니 봄 《신호수》로는 못 되지. 그러나 피꼴이는 리로운 새란다. 우리 나라에 오면 《고고빌래 개—》 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며 번식할 둥지부터 틀기 시작한단다.

만수—피꼴이 둥지는 어떤 데다 트나요?

척척 할아버지—집 근처에 있는 높은 나무 가지에 트는데 헝겊이나, 나무껍질, 실, 대패밥 같은 것으로 만든 오목한 둥지를 가는 나무'가지 끝에다 대롱대롱 매달리게 튼다. 뱀이나 다른 짐승들이 범접을 못하게 말이다. 그리고는 그 속에 4 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피꼴이는 새끼가 클 때까지 암컷과 수컷이 함께 새끼를 기른단다. 피꼴이는 뻐꾸기처럼 나무에 해를 주는 털벌레를 잡아 먹는 유익한 새란다.

영남—할아버지, 아직도 물어 볼 것이 많아요.

척척 할아버지—어서 더들 이야기하자.

철수—어제 저는 개구리가 알 낳는 것을 보자고 저녁 늦게까지 개울'가에서 지켜보았으나 끝내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개구리

척척 할아버지 — 옳다. 철수가 요새 왜 안 보이나 했더니 개구리 알 낳는 것을 보러 다니느라고 그랬구만. 철수가 올봄엔 자연 관찰을 아주 잘 하는 모양이지.

개구리는 보통 5월 경부터야 알을 낳는단다.

철수—예?!그런걸 난, 벌써부터 서둘렀구만…

척척 할아버지—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건 5월의 자연 관찰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이야기가 난 김에 내 이야기해 주지. 개구리는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개구리의 앞발에 사마귀 같은 큰 살'덩이가 생겨난단다. 너희들이 이제 잘 관찰해 보아라. 이것은 알을 낳는 암컷을 붙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개구리가 알을 낳는 시간은 보통 해 뜨기 전 새벽이나 혹은 어두컴컴한 저녁때이다. 한 번에 3,000~10,000 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그리고 약 1 주일 후면 알에서 올챙이 새끼들이 까나온다. 처음에는 이것이 꼭 물'고기 새끼와 같다. 그러다 점점 꼬리가 나와 올챙이가 되고 나중에는 꼬리가 없어지면서 뒤'다리가 먼저 생기고 앞다리가 생기면서 개구리 새끼가 된다.

철수—할아버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봄에 잡은 노루는 고기 맛이 없어 못 먹겠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척척 할아버지— 얘들 봐라, 이 때까지 새에 대한 걸 묻다가 이제는 노루 고기 맛까지 묻는구나. 정말 봄철을 맞이하니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모양이지.

만수—언젠가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말씀해 주세요.

척척 할아버지—이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시키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우선 겨울에 노루는 봄이나 여름처럼 풀을 많이 뜯어 먹을 수 있겠니? 어디 그것부터 대답해 봐라.

일동—없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서…

척척 할아버지—옳다. 많이 먹지 못 하고 겨울을 지냈으니 노루의 몸이 어떻게 되였겠니? 몹시 쇠약해졌겠지.

일동—예.

척척 할아버지—그러니까 봄에 잡은 노루 고기는 기름'기도 없고 게다가 또 곰직한 것까지 있으니 먹을 수 있겠니.

영남—곰직하다는 것은 뭐나요?

척척 할아버지—다른 게 아니다. 등에의 번데기가 노루 가죽 속에 있단 말이다.

영남—할아버지! 전 그걸 알아요. 작년 《소년단》 잡지 12 호에 났어요. 《동물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낼가요?》라는 글에서 봤어요.

척척 할아버지—보았느냐? 바로 등에란 놈이 노루 등에다 알을 쓸면 구데기가 노루 가죽을 뚫고 들어 가 번데기가 돼 있다가 봄이 되면 등에가 돼서 노루 가죽을 뚫고 나온단다. 그러니 곰직해서 봄철 노루 고기를 먹겠니, 노루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소도 깨끗이 거두어 주지 않으면 등에의 번데기가 있을 수 있단다. 그러길래 옛날 사람들은 《소 잔등에서 소 파리가 생긴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노루는 여름에 풀을 많이 뜯어 먹어 살이 오르면 등에가 나간 구멍도 다 메꿔질 뿐만 아니라 살이 오르고 6월 경에 둬 마리의 새끼를 낳아 번식을 하게 된단다.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물어보자.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시기는 왜 동물마다 다른지, 누구든지 아는 대로 대답해 보라.

일동—??

척척 할아버지—모두들 얼굴이 벌개지는 것을 보니 잘 모르겠는 모양이구나.

철수—할아버지, 거 아주 재미 있는 문젠데 어서 말씀해 주세요.

척척 할아버지—허허…그럼 내 먼저 이야기해 주지. 메'돼지는 1월에 쌍을 얹어 4~6월에 새끼를 낳고 (12~13 마리까지), 곰은 6~7월에 쌍을 얹어 1월에 새끼를 낳고, 범, 여우, 삵 등은 모두 노루보다 늦어서야 새끼를 낳는다. 이것은 새끼에게 먹여야 할 먹이와 많이 관계된단다.

노루의 경우를 보더라도 풀이 많이 돋아 나야 새끼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잖겠니? 노루 새끼는 풀을 뜯어 먹고 사니까 풀이 많을 때 새끼를 낳기 마련이다.

영남—그런데 왜 곰은 겨울에 굴 속에서 새끼를 낳아요?

척척 할아버지—곰은 겨울이 좋은 시기란다. 왜냐하면 곰은 젖을 먹이는 짐승이거든, 곰은 가을에 자기 몸에 많은 영양분을 저축해 가지고 굴로 들어 가 새끼를 낳는단다. 그래야 젖이 많이 나서 새끼에게 먹일 수 있잖겠니. 젖을 먹고 자라느라면 봄이 와 새끼들이 개울'가에 나가 즐겨하는 가재, 게 등을 잡아 먹을 수 있게 된단다.

범, 삵, 여우 같은 짐승들은 노루를 비롯한 약한 짐승들을 잡아 먹고 살기 때문에 자기 새끼들에게 그런 짐승들을 잡아 먹이기 위해서는 그런 짐승들의 새끼가 깨여난 뒤에 낳아야 하잖겠니.

영남—털짐승들은 묘하구만요.

척척 할아버지—그럼.

일동—할아버지, 많이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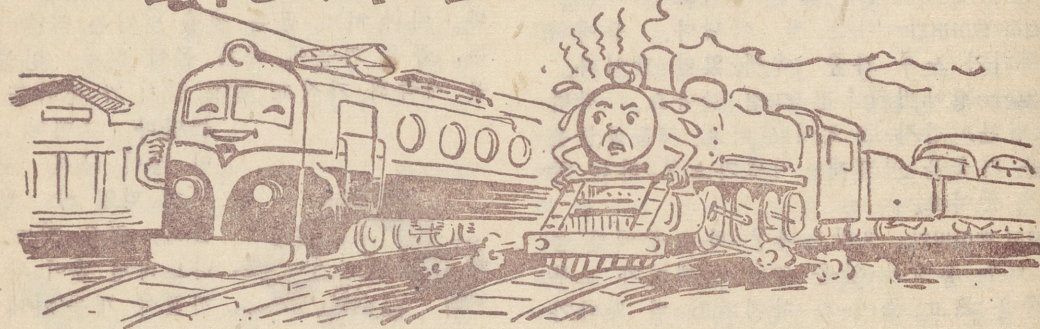
척척 할아버지—지식은 아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써 먹을 줄 알아야 한다.

봄이란 모든 동물들이 긴 겨울 잠에서 깨여 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을 남기기 위해 번식을 활발히 진행하는 시기니 잘 보호하고 해로운 짐승들은 더 번식하기 전에 잡아 없애야 한다.

일동—예,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척척 할아버지—오냐, 잘들 가거라.

# 《붉은 기》호와 《미가하》

신성천 역에서 있은 일입니다. 낮설은 한 대의 증기 기관차가 구슬 같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역 구내로 숨 가쁘게 달려 들어 왔습니다. 그는 평양에 사는 증기 기관차 《미가하》였는데 원산으로 가는 길이였습니다. 《미가하》는 평양—신의주 간은 매일처럼 뛰였지만 원산 쪽으로 가 보기는 이 번이 처음이였습니다. 그의 꽁무니에 달린 차량마다에는 짐이 가득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땀투성이가 된 《미가하》의 이마에서는 더운 김이 뭉게뭉게 피여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푸—푸—입김을 내뿜으며 숨을 들였습니다.

《미가하》가 다리쉼을 하고 막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말쑥한 몸차림을 한 색다른 기관차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사는 기관차야, 내 이름은 〈붉은기〉호라고 불러, 나는 너를 도우려 왔어, 이제 여기서 조금 가면 거차령이라는 높은 고개가 있단다. 이 고개는 너무 가파로와서 홑몸으로도 올라 가기 숨가쁠거야, 네 힘 가지구서는 이렇게 많은 짐을 끌구 올라 가기 힘들어, 그 짐을 나에게 넘겨 주렴, 내가 고개'마루까지 끌어다 줄게.》

《미가하》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따를만한 힘장사가 없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글쎄 이렇게 건방지게 자기의 힘을 깔보니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하》는 비양'조로 한 마디 대꾸했습니다.

《홍, 고맙다. 그런데 넌 〈미가하〉를 몰라 보누나. 네가 그래 나보다 힘이 세단 말이지?》

《나는 내 힘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를 진정 도우려고 하는 말이다. 올리막길에는 10 리나 되는 긴 굴이 있는데 굴 속에 들어 가 꾸물거리다간 석탄내에 취해 까무라칠 수도 있어, 어서 짐을 내게 넘겨 주어.》

《붉은기》호는 《미가하》를 도우려고 진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 자랑으로 뽐내기 좋아하는 《미가하》에게는 《붉은기》호의 말이 귀에 거슬리게만 들렸습니다.

《네가 그렇게 힘이 세다면 나하고 힘내기를 해 보자꾸나.》

《미가하》는 《붉은기》호에게 본때를 보여 주어서 그가 다시는 자기 앞에서 건방진 말을 하지 못 하게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붉은기》호는 《미가하》의 성화에 못'이겨 둘이 힘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가하》는 《붉은기》호더러 자기가 꽁무니에 단 것만한 무게의 짐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적게 달자고 할 줄만 알았던 《붉은기》호가 그의 배도 넘는 짐을 가져다 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긴 이것을 보는 《미가하》는 은근히 마음이 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하》는 그런 기색을 조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홍, 공연한 욕심이지, 나를 당할 힘장사가 어디 있다구…)

《미가하》는 마음 속으로 자신을 위안하면서 출발선에 나섰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미가하》는 자기를 보라는듯 《앙—앙—》 소란스럽게 고함을 치더니 《날 따를 힘장사 이 세상에 없다네, 칙칙폭폭. 미련한 〈붉은기〉호 어림두 없지, 칙칙폭폭.》 하고 조롱하며 몇 걸음 앞서서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붉은기》호는 말없이 휙—휙—달려 갔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벌써 《붉은기》호는 《미가하》를 따라 앞섰습니다.

연도에 늘어 선 도로수들이며 산천 초목들이 우쭐우쭐 춤을 추면서 《붉은기》호를 향해 환호를 올렸습니다.

《미가하》는 《붉은기》호를 따르려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미가하》는 구경을 하고 섰는 나무들 한테도 동정을 받지 못 했습 니다. 도리여 《미가하》가 지나 갈 때마다 나무들은 석탄'재도 더러워 뒤집어 쓰고 해서 달갑지 않은 눈초리로 그를 바라 보았습니다. 《미가하》가 너무 숨이 가빠서 헐떡거리며 연기를 내뿜다보니 석탄'재가 많이 날아 났던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였습니다. 《붉은기》호와 《미가하》는 멈춰 섰습니다. 지금까지 달려 온 거리를 재였습니다. 《붉은기》호는 그 무거운 짐을 끌고 《미가하》보다도 3배나 더 먼 거리를 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힘장사라고 뽐내던 《미가하》는 《붉은기》호보다도 적은 짐을 끌고도 그처럼 뒤떨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장사는 너였구나.》

《미가하》는 얼굴이 뻘개서 고개를 들지 못 했습니다. 힘 쓰기에서는 그래도 엄지 손'가락으로 꼽히던 자기가 《붉은기》호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붉은기》호가 그처럼 많은 짐을 끌고 자기보다도 더 빨리 달린 것은 틀림 없이 석탄을 많이 먹고 힘을 낸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문득 얼마 전에 석탄 절약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회의를 할 때 얻어 들은 보고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석탄은 공업의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석탄을 검은 금이라고 하며 금싸라기 다루듯 아끼고 귀중히 여깁니다.

우리 철도에서는 이런 귀중한 석탄을 나라에서 캐 내는 총 량의 15% 내지 20%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몇 개 큰 철도에서만도 한해에 130만 톤의 석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나라의 손 꼽히는 큰 탄광 하나가 한 해 동안 캐 내는 량에 맞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량의 석탄을 우리가 없애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그람의 석탄이라도 아껴서 씁시다…)

(그렇지, 석탄을 나보다 많이 쓰고 그렇게 달린 것이라면야 이긴 것이 못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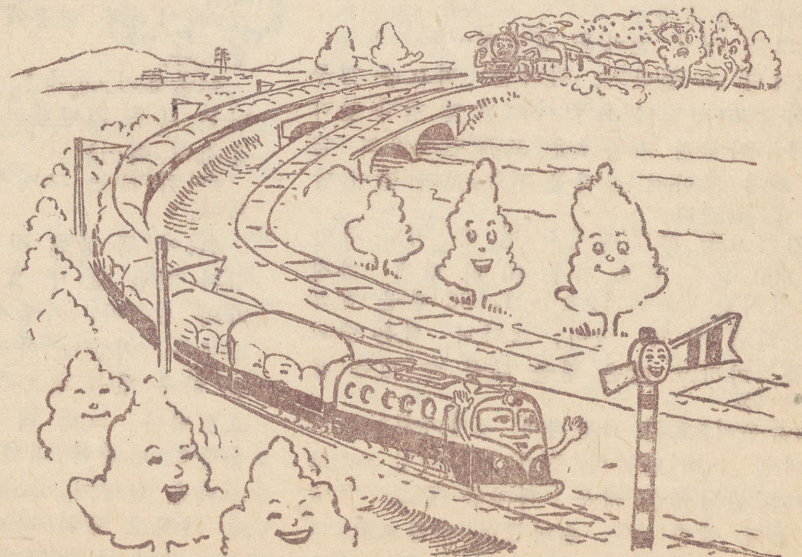
《미가하》는 이렇게 생각하며 《붉은기》호가 아까 석탄을 얼마 먹였는가를 알아보려고 《붉은기》호의 조수를 찾았습니다.

《우리 〈붉은기〉호에는 기관 조수가 없어.》

《붉은기》호 기관사 아저씨가 차창을 열고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석탄은 누가 공급해 줘요?》

《뭐, 석탄? 넌 정말 밤'중이구나, 아니 내가 석탄을 먹고 사는 줄 아니, 허허…》

《붉은기》호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껄껄 웃어 보였습니다. 그 바람에 《미가

하》는 얼굴이 빨개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뭘 먹고 사니?》

《전기를 먹지.》

《전기?!》

《미가하》는 《붉은기》호의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붉은기》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정말 석탄이라고는 한 줌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 때 옆에 섰던 《붉은기》호 기관사 아저씨가 설명해 주시는 것이였습니다.

《〈붉은기〉호는 전기를 먹기 때문에 석탄을 먹는 너에 비하면야 사람들에게 많은 리익을 주지, 석탄 절약에 못지 않게 로력도 많이 절약해서 나라에 큰 리익을 준단다.

연료 공급원이 필요 없지, 물을 대주던 급수소가 필요 없게 되니 물 공급원이 없어도 되지, 석탄을 운반해 오느라고 뛰던 운반 로력이 필요 없지, 또 너희들보다 힘이 세고 날래기 때문에 너희들 몇 형제서 운반할 일을 《붉은기》호는 혼자서 할 수 있거던.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하면 지금의 로력보다 훨씬 많이 절약된단다.》

《야 굉장하구나.》

《그건 아직 아무 것두 아니야, 인제 멀지 않아 자동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 역마다에서 렬차 운전을 지휘하던 사령원들도 다 없어지고 한 사람의 사령원이 백여 리 사이에 있는 10 개 내지 20 개의 역을 맡아서 렬차 운전을 지휘한단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 앞으로는 사령원도, 기관사도 없이 《붉은기》호가 혼자서 달릴 수 있게 된단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어디 그 뿐인가. 전기를 먹으면 힘두 너희들보다 배나 쓰구 속도도 몇 배나 빨라지구, 아무리 가파로운 고개'길이라도 숨이 차지 않아서 평지를 뛰는 것과 같이 달릴 수 있단다.

가파로운 고개'길에서 넌 한 시간 동안에 500 톤을 끌고 겨우 40 리 밖에 가지 못 하지만 《붉은기》호는 1,200 톤을 끌고 120 리를 갈 수 있어, 그러니 적은 수의 차를 가지고 많은 짐을 나를 수 있는 셈이지…》

《붉은기》호의 기관사와 《미가하》가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증기 기관차인 《스코다》가 손님들을 태운 객차를 끌고 구내로 들어 섰습니다. 손님들이 차창으로 내다 보며 《〈붉은기〉호다, 〈붉은기〉호다.》 고 웨치며 반겼습니다.

차가 멈춰 서자 몇몇 소년단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두 《미가하》가 하나 와 있다야.》

한 소년단원이 《미가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참 〈붉은기〉호에 비하면 이건 굼뜨지. 그런데두 뛸 때는 저 이상 없는 것처럼 칙칙폭폭, 요란한 소리를 내구.》

《인제 여기서(신성천)부터 고원까지는 〈붉은기〉호가 우리를 끌어 주니까 그런 소리는 없어질 거야.》

《미가하》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기》호 기관사 아저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려행하는 손님들도 저렇게 〈붉은기〉호 전기 기관차를 좋아한단다. 너희들은 달릴 때 너무나 소란스럽게 고아대구 또 검은 연기와 탄재를 자꾸 날려 보내서 손님들의 기분을 흐리게 할 때도 있지만 〈붉은기〉호는 그럴 념려가 없단다. 그래서 손님들은 더 깨끗하고 문화적인 려행을 할 수 있단 말이다. 우리 기관사들도 이렇게 깨끗한 옷 차림에 흰 장갑을 끼고 운전하니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지.》

《미가하》는 《붉은기》호가 자기에 비하면 몇 배나 날랜 재간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그런데도 《붉은기》호는 조금도 자기를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미하가》는 그의 이러한 행동에 진심으로 존경이 갔습니다.

《〈붉은기〉호야! 넌 장하다, 정말 장해. 나는 너무 거만했어, 아까 내가 한 말을 용서해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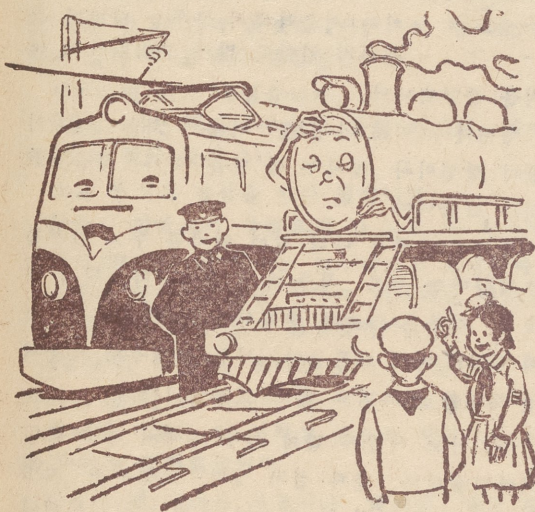
《미하가》는 그제서야 자신을 뉘우쳤습니다.

《나야 뭐 장할 것이 없어, 내가 그런 재간과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준 우리 나라의 로동자, 기술자 아저씨들이 장하지, 로동자, 기술자 아저씨들은 영웅이야. 나를 하나 만들 때도 18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했단다. 그런 데두 이런 복잡한 우리를 훌륭히 만들어 내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가. 그것도 우리 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원료와 자재로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세계에는 12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 철도를 전기화한 나라는 불과 44 개 나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자기 나라의 원료와 기술을 가지고 철도의 전기화를 한 나라는 정말 얼마되지 않거던. 이런 나라를 보면 공업화의 력사도 백 년 또는 수백 년씩이야. 그런데 공업화의 력사가 불과 10 년도 채 되지 못하는 우리 나라가 벌써 몇 해 전부터 철도 전기화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가.》

《붉은기》호 전기 기관차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쩐지 《미가하》는 몹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나라의 철도들이 다 전기화되지 않을가?》

《그럼 7 개년 계획 기간에 중요 간선들

은 다 전기화된다. 조선 로동당은 말이지, 철도를 전기화할려구 벌써 오래 전부터 생각하면서 밑천을 마련하구 기술을 키워 왔단다.

그래서 가파롭고 곡선이 심한 데부터 먼저 전기화를 하는 데 힘을 기울여 왔지, 오래 전에 벌써 신성천과 고원 사이 하구 단천과 명천 사이의 철도를 전기화했구, 작년에는 단천과 홍원 사이의 철도를 전기화했단다.

금년에는 또 평양과 신의주, 평양과 신성천 사이를 전기화한단다. 자, 이것을 읽어 봐, 내 고향 동생한테서 온 편지야.》

《붉은기》호는 호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미가하》는 시무룩해서 편지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고원 기관구 《붉은기》호 형님에게! 형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 공장에서는 올해 35 형제가 또 생겨 납니다. 나는 인제 5.1절 명절 날에 경사스럽게도 서평양 기관구로 세간을 납니다. 나는 평양 신의주 사이를 달리면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게 됩니다. 형님! 바쁘셔도 이 날 꼭 와 주십시오.

평양 전기 기관차 공장 동생 《붉은기》 2365 호)

《그러니까 5.1절까지는 평양과 신의주간 철'길두 전기화가 된단 말이지?》

《미가하》는 넋없이 물었습니다. 그는 아마 철도가 모두 전기화되면 자기들이 어떤 신세가 될 것인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더 커진 모양이였습니다.

《그럼, 전기화가 되지 않구,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우리에게 길을 내주고 아직 전기화되지 않은 지선에 가서 일하게 될 거야.》

《앞으론 지선두 다 전기화될터인데 그 때 우린 어떻게 하겠니?》

《허허허…넌 그 생각 때문에 울쩍해 있었구나, 걱정할 건 없어. 그 때 가서 용광로에 들어 갔다가 다시 우리와 같은 〈붉은기〉호로 되여 나오면 되지 않니, 그 땐 우린 또 함께 손잡고 달리자꾸나.》

《붉은기》호의 말에 《미가하》는 그 때야 새로운 용기를 얻은듯 얼굴에 웃음이 어렸습니다.

《야, 그럼 나두 앞으론 〈붉은기〉호로 될 수 있구나. 나두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건설하구 있는 전기 철도 공사를 힘껏 도와야겠다. 요즘 보니까 내가 달리는 철'길들에서 청년들이 신'바람이 나서 전주를 세우구, 전선을 늘이고, 심한 굽인돌이를 펴는 작업을 하더니 그게 철도 전기화 공사였구나. 그 숱한 자재를 날라 오려면 일'손들이 모자라겠는데 어서 다녀 가서 나두 그 일을 도와야겠다. 그럼 동생 세간 나는 날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

《미가하》는 《붉은기》 호가 되여 쟁쟁 달릴 앞날의 자기를 그려 보며 기쁜 마음을 안고 달리고 또 달리였습니다.

# 장선이 오누이의 눈물 겨운 이야기

안 전 일

서울시 후암동에 신 장선이라는 소년과 그의 동생 영자라는 소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 오누이는 벌써 8 년째 서울에서 거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얻어 먹으러 다녀도 둘이 함께 다니면 더 얻어 먹기 힘들기 때문에 늘 따로 헤여져 다닙니다. 그러다가 장선이는 때때로 구두닦기통을 메고 거리에 나갑니다.

거리에는 구두 닦을 사람보다 닦아 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구두 약칠할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우루루 몰려가 서로 붙들고 닦자고 야단입니다. 지어 한 켤레를 한 짝씩 나누어 닦기도 합니다.

장선이는 먹지 못 해 말라 드는 동생 영자를 생각해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종로 거리에서 일'감을 얻지 못 하면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는 기차에서 내리는 손님을 붙들고 《반 값을 줘도 좋으니 구두를 닦으세요, 네.》 하고 애걸합니다. 그가 너무도 조르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신을 신은 채 장선이의 무릎 앞에 발을 내밀군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구두를 닦는대야 저녁에 주먹만한 두부 비지 한 덩어리 살 돈을 벌면 다행입니다.

장선이가 두부 비지를 한 덩이 사 가지고 돌아 가면 거적때기를 친 토관 속에서 동생 영자가 썩은 사과 껍질이나 버린 생선 대가리를 주어다 먹으려고 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장선이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그들 오누이는 밤이 되면 이웃집 성덕이 (3 학년까지 학교에 다니다가 집이 가난해서 못 다니는 아이.)한테서 글을 배우군 합니다.

그러던 지난 가을 어느 날, 장선이는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다가 부산에서 인부를 많이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여나 그리로 가면 좀 나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장선이와 영자는 살'길을 찾아 부산으로 떠나 갔습니다.

장선이는 역전 다리 밑에 영자를 두고 인부를 모집한다는 부산 부두'가에 갔습니다. 철썩 처절썩 검푸른 파도가 설레이는 부두'가에는 수백 수천 명의 어른들이 이른 새벽부터 하루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떨고 있었습니다.

장선이도 이들과 함께 부두'가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불과 십여 명의 로동자를 모집하는데 수백 명이 와 있으니 그것이 장선이에게 차례지리란 만무하였습니다.

장선이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이나 온 부산 거리를 헤매였습니다.

《벌써 사흘째 굶은 영자에게 오늘까지 빈손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가?》 장선이는 거리를 빙빙 돌고 또 돌았으나 아무런 보람도 없었습니다.

장선이는 생각다 못 해 눈알을 팔아서 쌀되'박이라도 사다가 어린 동생에게 밥 한 끼 먹여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산 일보》사에 찾아 갔습니다. 신문사에 가 봐도 신통한 도리는 없었습니다.

장선이는 하는 수 없이 눈알을 팔겠다는 광고를 신문사에 맡기고 다시 피를 팔기 위해 거리에 나섰습니다.





피를 사는 혈액 은행에 가서 온 하루를 기다려 차례가 되여 들어 가니

《너는 영양 부족으로 피가 좋지 못 해 안 됐어.》 하고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우린 사흘째 굶었어요. 오늘 이 피를 팔지 않으면 우리 오누이는 굶어 죽어요. 네.》

장선이가 위생복 자락을 부여 잡고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다는듯 허락하여 겨우 절반 값으로 피를 뺐습니다.

300 g을 빼고 혈액 은행 문 밖을 나선 장선이는 정신이 핑그르 돌아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장선이는 비칠거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겼습니다. 그는 영자를 데리고 살아 갈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생각하면 기가 막혔습니다.

(에잇, 이런 세상에서 살아 무엇 하겠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는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눈물을 머금으며 상점으로 간 그는 빵 2 개와 수면제 32 알을 사 가지고 영자에게로 갔습니다.

오빠가 돌아 올 것을 애타게 기다리던 영자는 다리 밑에서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영자야, 오빠가 왔다. 먹을 것을 사 가지고 왔다. 어서 일어 나 빵을 먹으렴!》

영자의 어깨를 몇 번이고 흔드는 장선이의 손은 파르르 떨리였습니다.

잠에서 깬 영자는 사흘이나 굶어서 속이 텅 빈지라 빵 2 개를 단꺼번에 먹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장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 이젠 서울로 다시 돌아 가자.》 하고 영자의 손목을 잡고 일어 났습니다. 어쩐지 장선이의 온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였습니다. 장선이는 억지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걸었습니다.

장선이와 영자는 정거장으로 가던 도중 양지바른 언덕에서 잠간 쉬였습니다. 장선이는 수면제 32 알을 꺼내면서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정거장이란다. 조금 있다가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된다. 기차를 타면 영자는 멀미를 하지… 자 이 약은 멀미를 하지 않는 약이란다. 우리 이 약을 먹고 떠나자!》

장선이는 영자에게 억지로 수면제 15 알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이 죽는 약인 줄을 어린 영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자는 오빠가 주는 대로 이 약을 15 알이나 먹었습니다. 잠시 후에 영자는 《오빠, 나 잠이 와.》 하고 처량하게 말하였습니다.

《누우면 된다.》 눈물을 흘리며 장선이는 자기 무릎에 영자를 눕히고 눈을 꼭 감고 자기도 17 알의 수면제를 한 입에 넣고 꿀꺽 삼키였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에는 서울과 부산 거리에 다니며 고생하던 지난날의 눈물겨운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 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진 채 다시 일어 나지 못 하였습니다.

한창 꽃 피여야 할 장선이와 영자는 단 하루도 학교 문 앞에 가 보지 못한 채, 단 하루도 쌀밥을 배 불리 먹어 보지도 못한 채 영영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눈물겨운 사실입니까!

누가 바로 장선이 오누이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미제와 그 앞잡이 박 정희 도당들입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이처럼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어찌 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미제 원쑤들을 내몰고 박 정희 도당들을 쓸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이 통일되여야 장선이와 같은 불쌍한 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우리들도 아버지, 어머니들과 함께 싸워 나갑시다.

월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문을 팔러 다니는 남조선 어린이들

소년단원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나는 이 번호부터 《소년단》 지상을 통해 세계 려행을 하게 되였습니다. 왜냐구요? 요새 편집부에는 각지의 소년단원들로부터 세계 지식을 소개해 달라는 편지가 많이 온대요. 그래 나는 편집부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를 려행하면서 동무들에게 세계 지식을 소개해 줄 위임을 받았지요. 그럼 어느 나라로부터 려행을 하게 되는가구요? 그건 떠나 봐야 알겠어요.

평양에서 비행기를 탄 우리는 아름답게 펼쳐진 조국의 산야를 지나 망망한 태평양의 상공을 가르면서 적도의 아름다운 섬나라—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밑으로 연연히 깔려 있던 구름이 간 데 없이 사라지고 눈앞이 훤해지자 망망한 바다 우에 야자나무로 뒤덮인 수 많은 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섬들이 크고 작은 것을 합하여 모두 3천여 개나 된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이름도 바로 《섬이 많은 인도》라는 뜻에서 온 것이랍니다.

190만 4천여 평방 키로 메터의 면적과 1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땅 속 보물도 많은 나라였습니다.

주석 생산량은 세계에서 둘째 자리를 차지하고 석유는 다섯째, 고무 생산은 세계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이 모든 재부들은 350여 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두고 화란 식민주의자들에게 깡그리 빼앗겼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한 후에야 인도 네시아는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려행하면서 작년 5월 1일 서부 이리안을 해방한 기세로 계속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이 나라 인민들의 모습을 똑똑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쟈카르타의 어느 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둘러 선 가운데 연기가 자욱히 떠오르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청년들과 소년들이 미제를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세워 놓고 불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박수를 치며 환성을 올리는 것이였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있는 이 나라 인민들의 드높은 기세를 보면서 우리는 쟈카르타의 가장 번화한 중심 거리를 지나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붕카루노 경기장을 찾아 갔습니다.

10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이 경기장은 참으로 웅장하였습니다. 경기장 관람석 우에는 철근 콩크리트로 된 지붕이 있고 실내 체육관은 유리벽으로 되여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10일부터 10여 일 동안 진행된 신흥 세력 경기 대회가

바로 이 곳에서 진행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기 대회에서 천리마 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친 우리의 붉은 체육인들을 생각하며 영웅 조선에 태여난 자랑과 행복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거리에 나서니 이상한 끄깔 모자를 쓰고 가슴과 등에 돼지, 소대가리 그림을 붙인 10여 명의 청년들이 북을 치고 춤을 추다가 땅'바닥에 기기도 하면서 지나 가는 손님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회교도(회회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였는데 이런 천한 일을 많이 하면 오래 살고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인구의 80% 이상이 회회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둥으로 향하는 도중에 농촌 부락들에 들려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끈 것은 집들이 물 가운데 지어져 있는 것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이 남방 지방에서 유명한 물촌이였습니다. 이 《물촌》에서는 이웃집에 갈 때에도 쪽배를 타고 다닙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년 평균 강우량 3천 밀리 메터) 이 곳에서는 이런 《물촌》이 많이 생기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적게 오는 계절의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날씨는 년 평균 온도가 26 도나 되여 매우 무덥습니다. 그러므로 벼 농사를 1 년에 두 번 이상 할 수 있고 열대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는 정말 우리 나라에서는 얼핏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우리 눈을 끌였습니다. 우리들의 집에서는 화분에서밖에 키우지 못하는 선인장 같은 것이 들판 여기 저기서 자라는데 그 키 높이가 10 메터씩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 뿐이겠어요. 들판 한쪽에서는 벼'모가 파랗게 자라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벼가을을 하고 있는 등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벼가을을 하는 방법도 아주 흥미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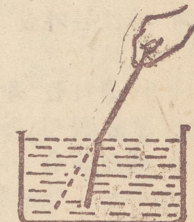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는 벼가을을 할 때면 낫이나 벼 수확기로 벼 밑 그루를 베지만 거기서는 자그마한 손칼 같은 것으로 이삭을 하나하나 잘라서 벼'단을 묶고 있었어요.

적도 지방의 이 무더운 나라에서 얼음이나 눈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부 이리안에서는 카르스텐쓰산(높이 4천여 메터)이 있는데 거기에는 빙하(얼음이 강처럼 뒤덮인 것)가 있어서 거기 가면 언제나 얼음과 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자원이 풍부하고 경치가 좋은 자기 조국을 다시는 침략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물을 담은 사발에 저'가락을 넣고 보면 저'가락은 굽어져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가요?

빛은 같은 성질을 가진 물질 속에서는 곧바로 가지만 성질이 다른 물질 속을 지나 갈 때는 각이하게 굽어지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성질이 다른 물과 공기 속을 지나 눈에 오기 때문에 저'가락은 굽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 라틴 아메리카의 파나마에서는 파나마 운하를 독차지하고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미국놈들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 났습니다.

이것은 미국놈들이 파나마 인민의 피땀으로 건설된 파나마 운하를 빼앗고 파나마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 내며 파나마 인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쌓이고 쌓였던 참을 수 없는 격분이 폭발된 것이였습니다.

투쟁에 나선 파나마 인민들은 미국놈들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고 미국놈의 회사의 건물과 자동차들을 수 많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겁을 집어 먹은 미국놈들은 맨손으로 일어 나 싸우는 파나마 인민들에게 군대와 땅크를 동원해서 수 많은 사람들을 죽이였습니다.

그러나 파나마 인민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파나마 인민들이 어찌하여 투쟁에 나서게 되였는가를 알아 보기로 합시다.

× ×

파나마 운하는 북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잇닿은 곳인 파나마의 중부에 있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 놓은 운하입니다.

이 운하는 아프리카의 스에즈 운하와 함께 세계에 있는 7 개의 큰 운하들 중에서도 가장 큰 운하의 하나입니다.

파나마 운하가 개통된 것은 1914년입니다.

이 운하가 건설되기 전에는 배들이 태평양으로 나오자면 라틴 아메리카의 남쪽을 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남의 나라를 빼앗는 데 이골이 난 악독한 미제국주의 놈들은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에 손을 뻗치며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놈들은 남의 나라 땅인 파나마를 빼앗아서 여기에다 운하를 건설할 야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 때 이 파나마 지역은 콜롬비아의 땅이였습니다.

음흉한 미국놈들은 뻔뻔스럽게도 1903년 1월에 콜롬비아 정부에다 제놈들에게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권한을 달라고 강제로 요구해 나섰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이것을 들어 줄 리 없었습니다. 그러자 미국놈들은 이 지역을 콜롬비아로부터 떼 낼 것을 꿈꾸고 앞잡이들을 추겨서 이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이 일어 나자 미국놈들은 곧 자기의 군대를 보내 파나마를 콜롬비아로부터 떼 내여 파나마 공화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생긴 파나마 공화국과 이른바 《파나마-미국 조약》이라는 것을 꾸며 가지고 파나마 운하와 그 량쪽에 각각 8 km 에 달하는 1,432 평방 킬로 메터의 령토를 영원히 빌린다는 형식으로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파나마 운하는 1904년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남의 나라를 빼앗아 제놈들의 배를 불리기에 미쳐 날뛰는 미국놈들은 이 운하를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기 위해 파나마에서는 물론이고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러한 안전 시설도 없는 이 위험한 공사장에다 채찍과 몽둥이로 로동자들을 때려 내몰았습니다. 그리고도 임금이란 새 발의 피 만큼도 못 되게 주었습니다. 일하다가 기계에 치운다든가 물에 빠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다 생매장해 버렸습니다. 기후가 무더운 데다 울창한 산림이 우거진 습지대에는 무서운 악어들과 모기들이 욱실거렸습니다.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는 로동자들은 일에 지쳐 쓰러지고 무서운 전염병과 악어에 물리워 쓰러졌습니다.

그야말로 파나마 운하는 수 많은 이 나라 인민들과 공사에 끌려 온 로동자들의 피눈물과 원한의 시체'더미로 이루어진 것이였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공사가 시작된지 10 년 만인 1914년 8월 15일에 이 운하로 첫 배가 지나 가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파나마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룩된 운하는 그 후 완전히 미국놈들의 손아귀에 넘어 갔고 파나마 인민들은 운하 지대에서 쫓겨 났습니다.

파나마 인민들은 제 나라 땅이지만 미국놈이 내 주는 증명서가 없이는 이 지역에 드나들지도 못 하게 되여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이렇게 독차지한 미국놈들은 여기서 해마다 많은 돈을 벌어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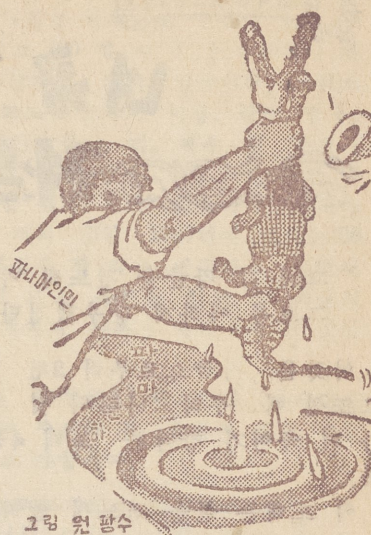
이 운하로는 하루에 약 36 척의 배가 지나 갈 수 있는데 최근에는 한 시간에 한 척 정도의 배가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놈들은 이 운하를 지나 가는 배들에서 받은 통행세만 해도 1 년에 1억 딸라의 돈을 얻어 냅니다.

그러나 파나마에 주는 몫이란 1 년에 고작해야 68만 딸라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차지하는 몫의 100 분의 1도 못 되는 것입니다.

미국놈들은 운하 지대에서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놈들은 파나마에서 많이 나는 농산물인 바나나, 코코아, 커피 같은 것도 모두 독차지하고 헐값으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림 원 팔수

뿐만 아니라 미국놈들은 파나마 지역에다 군대를 가져다 놓고 라틴 아메리카를 침략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 밖에 되지 않는 파나마 인민들은 이 운하 하나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동안 파나마 인민들은 이 운하를 빼앗긴 채 헤아릴 수 없는 압박과 고통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때문에 파나마 인민들은 미국놈들에게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품고 이 지역을 다시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투쟁에 나섰습니다. 여러 차례의 투쟁 끝에 작년 1월부터는 운하 지대 내에서 미국 국기를 띄우는 곳에는 어디서나 파나마 국기를 띄우는데 합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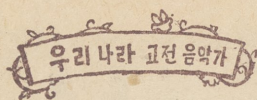
그런데 오만한 미국놈들은 최근 이 지대에서 30 일 동안이나 파나마 국기를 못 띄우게 했던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며 자기 민족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파나마 인민은 미국놈들의 이 참을 수 없는 행동을 그 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9일 마침내 파나마의 학생들과 인민들이 들고 일어 났던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 인민들은 미제는 파나마에서 피묻은 손을 떼라고 웨치면서 파나마 인민을 돕고 있습니다.

제 나라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운하를 찾으려는 파나마 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나라 고전 음악가

# 녀류 음악가 려옥과 《공후인》

그대 그 강물을 건느지 마십사고
그토록 애타게 당부했건만.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천 수백 년 전 고조선 때 우리 나라의 첫 녀류 음악가 려 옥이가 창작한 노래 《공후인》입니다.

이 노래는 물을 건느지 말라고 말리였는데 듣지 않고 건느다 그만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달파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사람들의 심장을 얼마나 울리였는지 오늘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려 옥이는 어려서부터 악기를 연주하는 데 남다른 재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루 한두 시간씩 잊지 않고 《공후》(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진 민족 현악기의 하나)를 타는 련습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려 옥이네 집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음악 소리가 멎을 때까지 서서 들었답니다. 려 옥의 음악이 그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당겼던 것이지요. 그는 아버지, 어머니의 일'손을 도울 때에도, 동무들과 함께 재미 있게 놀 때에도 언제나 《공후》에 담아 연주할 노래를 지어 불렀답니다.

려 옥이는 자기의 음악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하여 주는 것을 제일 큰 행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공후》를 연주하군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려 옥의 이름은 차츰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유명한 《공후》 연주가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이 뛰여난 음악가의 노래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공후인》 하나 뿐입니다.

그러나 이 《공후인》을 가지고 우리 나라 고대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공후인》에는 예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하여 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배'사공이였던 려 옥의 남편 곽 리자고가 나루터에서 배를 부리고 있었답니다. 이 때 한 백발 할아버지가 병을 들고 깊은 강물에 들어 서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또 할머니가 뒤따라 오며 말리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끝내 듣지 않고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할머니는 너무도 기가 막혀 《공후》를 부둥켜 안고 슬픔을 노래 부르다가 자기도 할아버지를 따라 첨벙 강물에 뛰여 들었습니다. 곽 리자고가 미처 손 쓸 사이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곽 리자고는 그 날 집에 돌아 와 려 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남편에게서 뜻하지 않던 이야기를 들은 려 옥은 그 자리에서 《공후》를 투기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지간에 세상에 널리 전하여 지면서 유명한 《공후인》으로 되였다는 것입니다.

《공후인》에 담겨진 이 한 토막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권세 있는 놈들의 압제에 못'이겨 시퍼런 강물에 귀중한 목숨까지 던지지 않으면 안 되였던 그 때의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봅니다.

《공후인》에는 실로 로동을 즐기고 그 속에서 춤과 노래를 만들어 낸 고조선 인민들의 생활이 훌륭하게 담겨 있습니다.

《공후인》은 멀리 중국에까지 전하여져서 널리 불리워진 유명한 노래입니다.

우리 나라의 력사가 시작된 까마득히 먼 옛날 고조선 때부터 대를 이어 내려오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예술은 오늘 로동당 시대에 와서 더욱 활짝 꽃피여 《황금의 예술》, 《금강석의 예술》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 학교와 마을에 과실나무를 많이 심자!

우리 나라에는 사과, 배, 복숭아, 살구, 감, 포도, 대추, 양벚, 앵두 등 여러 가지 과실이 많습니다.

7 개년 계획 말인 1967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50만 톤 이상의 과실을 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실나무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였던 량강도 혜산을 비롯한 북쪽의 높은 지대들에서도 배, 복숭아, 포도, 사과 등 각종 과실을 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디에서나 다양하고 신선한 과실을 사철 떨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였습니다.

공화국 내각에서는 우리 나라를 온갖 과실이 무르익는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에 과실나무를 더 많이 심고 가꿀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리하여 전국 각지의 협동 농장들과 과수 농장들에서는 물론이고 농촌에 있는 중 학교들에서도 100 명 당 0 .5 정보씩의 과수원을 만들기로 되여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포도는 2 그루 이상, 살구, 앵두, 양벚, 복숭아, 추리, 감, 대추 등 중에서 자기 지방에서 잘 되는 품종으로 골라 5 그루 이상을 심게 되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7 개년 계획 말인 1967년에 가서는 50만 톤의 과실을 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인구 한 사람이 하루에 1 개씩의 사과가 차례지게 될 것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학교마다 과수원을 만들며 학교 주위와 집 둘레에 많은 과실나무를 심고 가꿉시다.

## 과실나무는 어떤 땅에 심는 것이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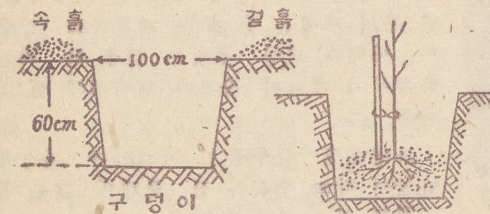
과수는 밭곡식과 달라서 40~50 년, 때로는 100 년 이상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수원을 만들 땅을 옳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을 잘못 정하면 과실이 잘 익지도 않을 뿐더러 적게 열리며 나무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과수원은 땅의 경사도가 15 도를 넘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북 쪽에서 불어 오는 찬 바람을 막고, 따뜻하고, 너무 매마르거나 습하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특히 과수는 뿌리가 땅 속 깊이 뻗어 들어 가므로 땅 속에 바위가 있거나 땅 우에서 2 m 이내에 딴딴한 진흙 층이 있는 곳은 좋지 않습니다.

## 과실나무를 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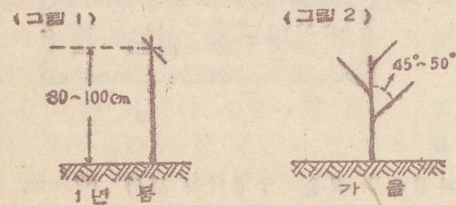
과실나무 심을 구덩이는 깊이 60 cm, 너비는 100 cm로 파야 합니다.

구덩이를 팔 때는 반드시 겉의 흙과 속의 흙을 따로 갈라 놓았다가 나무를 심을 때는 먼저 겉의 흙을 구덩이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 흙은 질 좋은 자급 비료 20 kg을 잘 섞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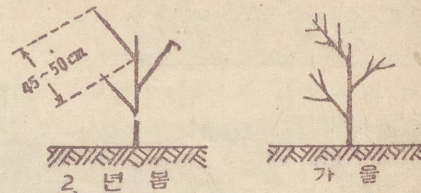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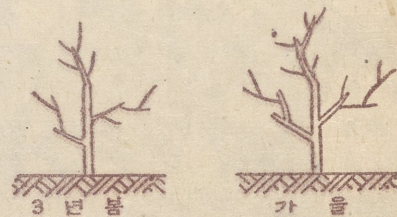
구덩이 깊이의 $\frac{3}{4}$ 정도 올라 오도록 원추형으로 덮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우에 모목의 뿌리를 자연스럽게 고루 펴고 흙을 묻어 줍니다. 그리고 바깥 쪽에서부터 안으로 들여 밟아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한 바께쯔 가량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 과실나무 가꾸는 법

과실이 많이 열리게 하자면 나무를 잘 가꾸어서 열매가 달릴 가지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지 자르기와 휘여 매는 방법 등으로 나무의 모양을 잘 만들어 주며 과실이 달릴 원가지들을 고루게 두어야 합니다.

## 사과

첫 해는 사과나무의 80 cm~100 cm의 높이에서 자릅니다. (그림 1) 그러면 몇 개의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 맨 웃가지는 곧게 바로 잡아서 원대로 키우고 밑의 다른 가지는 10~15 cm의 사이를 두고 배치합니다. 원대와 가지 사이의 각도는 그림 2 와 같이 45~50 도로 되게 벌려 주던가 좁혀 주어야 합니다.

이듬해는 전 해에 자란 가지 중에서 가운데 곧게 자란 가지를 45~50 cm로 충실한 눈을 남기고 잘라 줍니다. 밑의 다른 가지들은 가지 길이의 $\frac{1}{3}$~$\frac{1}{4}$ 되는 곳에서 눈을 바깥 쪽으로



가게 하고 잘라 줍니다. 그러면 또 몇 개의 새로운 가지가 자라 납니다.

3 년째 작업은 가운데 곧게 자란 가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 해에 자른 방향과 반대 방향에 충실한 눈을 남기고 45~50 cm로 자릅니다. 다른 가지들은 가지 길이의 $\frac{1}{3}$~$\frac{1}{4}$ 되는 곳을 잘라 줍니다.

4~6 년째 작업은 앞으로 잘라 버리지 않을 원가지들을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이 원가지들은 좀 여유를 두어서 6~8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헛 자란 가지가 많으면 45~50 도의 각도로 휘여 매여 바로 잡아 두었다가 리용합니다.

안으로 향한 가지와 드리운 가지는 가지 자르기를 하여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사과는 6~7 년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지나치게 달아 두면 1~2 년에 나무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가지와 곁 가지의 끝에 달리는 열매는 따 버려야 합니다.

## 배

배나무는 나무모를 심은 첫 해에 50~60 cm 높이에서 잘라 줍니다. 그러면 그 해에 가지가 생깁니다. 이듬해에는 지난 해 자란 가지 중에서 원대로 쓸 가운데 가지는 45~50 cm로 잘라서 곧게 세우고 그 밖의 가지들은 원대와의 45~50 도의 각도로 휘여 매면서 가지 길이의 $\frac{1}{3}$ 정도를 자릅니다. 배의 가지는 곧바로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휘여 매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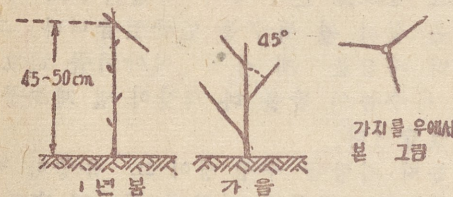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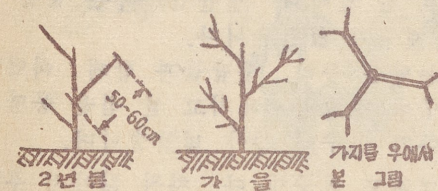
원가지와 원가지 사이는 15~30 cm로 두어야 합니다.

원가지의 수는 7~9 대로 만들고 서로 어긋나게 사방으로 고루 배치하여 주어야 합니다.

배는 가지 끝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달리는 가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 해마다 가지의 끝을 가지 길이의 $\frac{1}{3}$ 정도를 잘라 주어야 합니다.

## 복숭아

복숭아는 나무 모를 심은 첫 해 봄에 땅 우에서 45~60 cm의 높이에서 자릅니다. 그러면 가지끝 부분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나옵니다. 6월 상순에 돋아 난 여러 개의 가지 중에서 튼튼한 가지 3 개만을 원 가지로 남기고 다른 가지들은 다 잘라 버립니다.

원가지들의 거리는 5~10 cm 정도로 하며 원대에 대한 원가지의 각도는 45 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듬해에는 전 해에 3 대의 원가지를 각각 50~60 cm 정도의 길이로 남기되 가지를 벌게 하려는 량쪽 방향에 튼튼한 입눈을 남기고 잘라 줍니다. 그러면 가지 마다에서 여러 개씩의 가지가 생겨 나는데 그 중에서 튼튼한 가지 2 대씩을 원가지로 하여 모두 6 대의 원가지가 되게 합니다.

3 년째는 6 대의 원가지를 각각 50~60 cm 정도의 길이에서 입눈을 가지의 량쪽에 두고 잘라 줍니다. 6 개의 원가지들에서는 여러 개의 새 가지들이 나오는데 6월 상순 경에 매 가지마다 두 개씩 모두 2 대의 원가지로 되게 하고 나머지 가지들은 충실한 입눈을 2~3 개씩 남기고 잘라 줍니다.

4 년째는 12 대의 원가지들을 각각 50~60 cm 정도의 길이로 잘라 주어 곁가지들이 나오게 합니다. 인제는 가지를 더 자르지 않고 원가지 우에 열매 가지를 알맞게 배치하면서 따기 시작합니다.

##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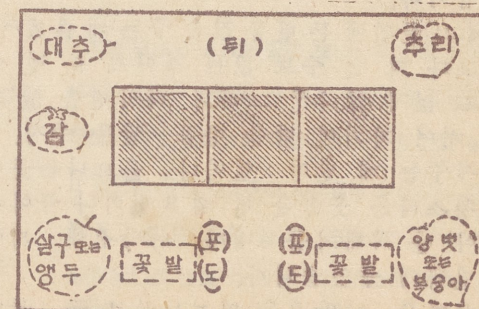
감은 심은 후 3~4 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첫 해 작업은 나무 모를 심은 후 땅 우에서 60~80 cm 정도 자란 다음 나무를 자릅니다. 그러면 여름에 가지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튼튼한 가지 3 대만 키웁니다.

이듬해에는 나무 꼭대기는 충실한 눈을 두고 잘라서 연장시키며 3 대의 원가지는 가지 길이의 $\frac{1}{3}$ 정도를 자릅니다. 매 원가지에 또 가지들을 키워 6 대의 기본 가지를 만듭니다.

3 년째에는 6 대의 기본 가지를 45 cm로 잘라서 매 가지마다 2~3 대의 곁가지를 자래웁니다.

## 살구

살구나무의 가지 자르기는 첫 해에는 땅 우에서 60 cm 정도에서 자르고 그 우에 3~4 개의 원가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가지들이 서로 배게 되지 않을 정도로 솎아 주면 됩니다.

집 둘레에 심는 과실나무들의 자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 이야기

# 뒤주 값

옛날 어느 한 곳에 손'재간 있는 한 농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민은 손'재간이 좋아서 겨울철이면 통나무를 가지고 나막신도 깎고 소 구유(소 여물을 담아 주기 위해 나무로 만든 것)나 함지 같은 것도 파서 마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쌀되'박이나 벌어서 살림을 보탬하며 살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물건들은 든든하고 가볍고 고와서 모두 쓸모 있게 만든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지주가 하루는 그 농민을 불러 나막신을 한 켤레 깎아 달라고 했습니다. 농민은 그러마고 대답하고 돌아 와서 며칠 후에 나막신 한 켤레를 아주 곱고 튼튼하게 깎아 가지고 지주에게 가져 갔습니다.

나막신을 본 지주는 좋아하면서 값을 얼마나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령감님 생각 대로 주시지요.》

지주는 농민의 대답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값을 적게 줄가 하고 궁리했습니다.

《그 물건에 든 만큼 값을 주는 게 옳겠지. 그보다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덜 줄 수도 없지 않나? 그러니 나막신을 쌀'되로 하여 거기에 담을 만큼 쌀을 주지.》

지주는 제 말이 얼마나 옳으냐는듯이 능청스러운 웃음을 띤 채 3년이나 묵어서 좀이 난 싸래기를 내다 나막신에 되여 농민에게 주었습니다.

농민은 나막신을 만드느라고 공 들인 값은 고사하고 왔다 갔다 한 발 품삯도 못 되는 것인 줄 알았지만 속으로는 딴 궁리가 있어서 어리석은 체 하며 그 대로 받았습니다.

지주는 썩은 쌀 한 줌을 받아 들고 나가는 농민을 쳐다보며 이 어리석은 녀석이 제 꾀에 속아 넘어 갔다고 속으로 좋아하였습니다.

며칠 후 농민이 지주를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쓰는 것처럼 《지주님, 이제는 가을도 가까와 오는데 쌀을 넣어두시자면 뒤주가 더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 깎아다 드릴가요?》 하고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지주는 그렇지 않아도 또 무엇을 만들게 없을가 궁리하던 참이라 입이 귀 밑까지 돌아 가며 좋아했습니다.

농민은 지주가 좋아하는 꼴을 보고 속으로는

《흥, 네 놈이 한 번 골탕을 먹어 봐라.》 하고 집으로 돌아 와서 박달나무로 방 한 간은 실히 될 뒤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동리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못된 지주놈의 쌀을 다 빼앗아 낼 계교를 꾸미였습니다.

동리 사람들 수십 명이 그 육중한 뒤주를 맞들고 지주네 마당에 들여다 놓자 지주는 입이 함지박만 해져서 좋아하였습니다.

농민은 처음에 지주가 말한 대로 물건에 들 만큼 값을 내라고 했습니다.

동리 사람들은 곁에서 시침을 뚝 따고 그 농민의 말이 옳다고 맞장구들을 쳤습니다. 지주는 입이 꽉 막혔습니다. 제 입으로 한 말이니 별안간 다른 말을 꾸며 댈 재주가 없었습니다.

농민은 동리 사람들과 함께 태연하게 지주네 창고를 헤치고 쌀 섬을 몽땅 져 내다가 뒤주에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도 뒤주에 다 차지 않아서 부엌에 묻어 놓은 독의 쌀까지 퍼 내여 채운 다음 다시 섬에 담아서 동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짐씩 지워 보냈습니다. 지주는 그 모양을 보다가 너무 분통이 터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헤여져 간 지주집 뜰 안에는 텅 빈 뒤주와 기절한 지주만이 남았습니다.



련재 그림

①

허 일

그림 맹 동원

이 그림 이야기는 지난번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전국 예술 축전에서 1등을 한 인형극《오누이》(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직속 인형 극장 공연)를 그림 이야기로 만든 것입니다.

① 동해안의 어느 자그마한 포구 마을에 올해에도 벚꽃이 만발하였다. 그러나 선주 강 기만에게 얽매여 지내는 사공 조 덕관의 집에는 여전히 걱정만이 쌓여 있었다. 그것은 이 집의 아들 봉일이를 나이 열 두 살이 넘도록 학교에 보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②

③

② 올해에는 꼭 학교에 가겠다고 봉일이는 학교 가는 련습까지 한다. 누이동생 봉숙이는 《맨발로 어떻게 학교엘 가?》 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봉일은 《난 학교에만 보내 주면 맨발로라도 다닐래!》 하고 뛰여 나간다. 그만치 봉일의 가슴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다.

③ 왜놈 군대에 고기를 잡아 보내기로 되여 있는데 어부들이 날씨가 사나와 바다에 안 나가 골치를 앓고 있던 선주 기만과 그의 졸개인 감독놈은 봉일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 애달아 하고 있으며 그의 부모들이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 놈은 이것이 봉일 아버지를 꾀여 바다에 내몰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음흉하게 웃는다.

④ 봉일 아버지는 헛탕을 치고 무거운 걸음으로 집에 돌아 온다. 어데 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입학금을 마련할 만한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아버지는 부르짖는다. 《저 놈의 파도는 왜 바다에서만 울툴거리는지 모르겠어. 땅 우에서 돈 많다고 거드럭거리는 것들도 쓸어 버리지 않고!》

⑤ 같은 마을에 사는 사공 진국 아저씨는 선주놈의 위협 공갈에 못'이겨 바다에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봉일 아버지에게 같이 나가지 않겠느냐고 권한다. 그러나 봉일 아버지는 《이 험한 날에 나가면 죽는다.》고 나가지 말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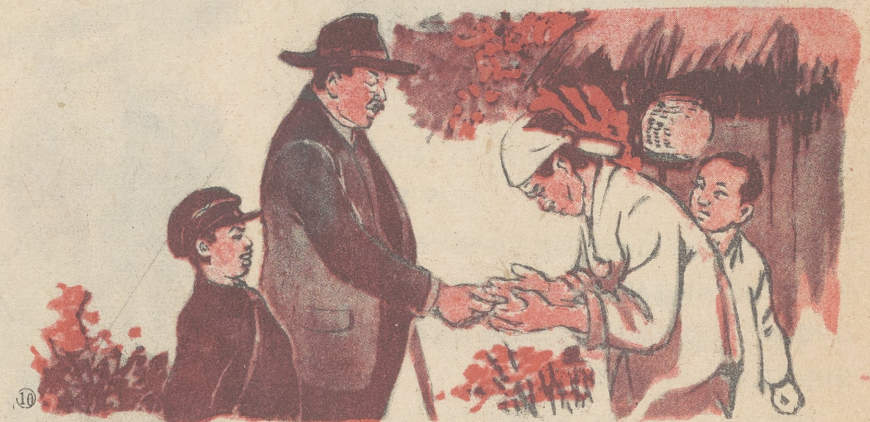
⑥ 저녁 먹이를 잡으러 갔다 돌아 온 봉일은 《아버지, 학교에 가게 됐어요?》 하며 안타까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 본다. 아버지는 봉일이가 락심할 것이 애처러워 《암 가구 말구,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안심시킨다.

⑦ 고기 팔러 가셨던 어머니는 겨우 연필 한 자루를 사다 주셨다. 봉일은 학교에 가게 된 기쁨을 안고 《난 백점만 맞는 우등생이 될래, 그리고 커서 큰 배의 선장이 될테야》 하면서 연필을 소중히 바라 본다. 봉숙이도 같이 기뻐 한다.



⑧ 이 때 감독놈이 와서 어머니가 일 년이나 걸려서 봉일이의 학생모를 사 주려고 모은 돈을 당장 빚 값으로 내리고 빼앗아 간다. 봉일은 입학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도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새삼스럽게 느낀다.

⑨ 그는 아버지에게 《학교 안 가도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불쌍해요.》하면서 가난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세상을 원망한다. 아버지는 봉일이의 갸륵한 심정을 알아 주며 학교에 못 가게 되는 것을 더욱 안타까와 하신다.

⑩ 이 때 선주 기만은 새 양복에 좋은 가방을 메운 자기 아들 칠석이를 앞 세우고 나타난다. 칠석은 학교에 가게 된 것을 자랑한다. 기만은 봉일 아버지에게 봉일이를 학교에 보내라고 돈을 내준다. 그러면서 바다에 나가 줄 것을 강요한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돈을 받는다.

⑪ 《아버지 안 돼요, 저렇게 사나운 바다에 나가면 죽는대요. 난 싫어요. 아버지.》 《봉일아, 내 걱정은 말고 공부를 잘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여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

아버지는 봉일의 공부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간다.

⑫ 며칠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안 돌아 오신다. 봉일과 봉숙은 매일 부두에 나와 노래 부르며 아버지를 기다린다.

노래

《갈매기야 아느냐 너는 아느냐
어찌하여 아버지 못 오시는가
내 몸도 너와 같이 나래 돋혀서
아버지 배'머리에 날고 싶고나
아―산 같은 파도가 가로 막았나.
비'바람 모질게 돛대 꺾었나
어찌하여 아버지 못 오시는가?》

⑬ 어로공인 성호 아저씨는 《여러 분 우리 가난한 어부들은 성은 다르지만 한 집안 식구입니다. 지금은 앉아서 걱정만 할 때가 못 됩니다. 자, 봉일이 아버지를 구하러 떠납시다》. 하면서 모진 비'바람을 뚫고 다른 아저씨들과 함께 바다로 나간다.

⑭ 한편 오늘도 봉일의 학생모를 사 주기 위해서 먼 읍까지 고기를 팔러 나갔던 어머니가 학생모를 사 가지고 아버지가 오셨는가고 부두'가에 달려 오신다.

그러나 해가 또 저므는 데도 배는 돌아 오지 않는다.

⑮ 이윽고 성호 아저씨를 비롯한 어부들이 돌아 온다. 그러나 봉일 아버지만은 안 보인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밑창이 썩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억울하게 돌아 가셨다는 것이다.



⑯ 《봉일아! 래일이면 학교 가는 날인 데네가 이 모자를 쓴 것을 영영 못 보시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땅을 치고 분통해 하신다. 봉일은 몸부림치며 바다에 대고 《아버지―》 하고 부른다.

⑰ 선주놈은 사람이 죽은 것은 아랑곳 하지도 않고 배가 없어졌다고 호통친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살려 내라고 선주에게 다가 든다. 선주놈은 어머니를 사정 없이 찬다. 어머니는 화'김에 도끼를 들고 선주를 내리친다. 그러나 빗맞는다.

⑱ 이 때 선주놈과 미리 내통한 일제 경찰 기무라가 와서 어머니를 묶는다.

봉일은 《아버지도 돌아 가셨는데 어머니마저 잡아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고 애걸한다.

그러나 왜놈 경찰은 사정 없이 어머니를 끌고 간다.

⑲ 봉일과 봉숙은 울며 어머니를 따른다. 선주놈은 두 오누이의 앞길을 가로 막아 나선다.

《너희 두 놈이 한편생 일을 해도 너희 아버지가 진 빚은 못 갚는다.》 하면서 그들을 자기 집 머슴으로 끌고 간다.

(다음 호에 계속)

# 소년단원의 날

매주 토요일은 동무들이 즐기는 《소년단원의 날》입니다. 《소년단원의 날》은 대체로 한 달에 네번씩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 세 번은 분단에서 하고 한 번은 단에서 하게 되여 있습니다.

그럼 《소년단원의 날》에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가요?

**① 흥미 있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연 띄우기, 팽이 돌리기, 썰매, 스키, 스케트 경기 등을 할 수 있고 봄,여름,가을에는 운동회, 예술 체조, 집단 체조 대회, 등산과 행군, 군사 유희 놀음, 수영 경기, 뽀드놀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다채로운 문학 예술 활동을 합니다.**

흥겨운 노래 모임, 예술 써클 경연 대회, 시 랑송 모임, 옛말 발표회, 수수께끼 대회, 구연 및 동화회, 웅변 모임, 그림극 및 환등극 모임, 작문 짓기 대회, 《독서 행군》 참가자들의 모임, 소년단 야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재미 있는 과학 기술 활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동물, 여러 가지 식물, 땅 속의 보물, 바다 속의 비밀 등을 내용으로 《과학 이야기 모임》을 가집니다.

알아 맞히기, 과학 기술 (학과) 경연 대회, 《재간 있는 솜씨》 자랑 전람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소년단 모임(단,분단 총회, 반 모임,그 밖에 여러 가지 모임)도 하며 모범 소년단원들을 칭찬해 주는 《영예의 사진 촬영》, 《영예의 붉은 수첩》 등록, 《단 영예판》 게시 등을 할 수 있고 소년단 사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단원의 날》을 잘 운영하자면 단, 분단 위원회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계획은 어떻게 세울가요?

례를 들어 3월 계획을 세운다고 합시다. 3월 첫 주 토요일은 단에서 하는 《소년단원의 날》로 정하고 나머지 세 번은 분단에서 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에서 하는 《소년단원의 날》에는 토지 개혁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마을의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으로 웅변 모임,그림극 발표회 등 뜻 깊은 모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머슴'군이던 모범 농장원이나 로력 영웅 아저씨와의 상봉 모임 또는 그림극 발표회 등을 계획하고 미리부터 지주놈의 압박과 착취를 폭로하는 재담,스케치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획은 단에서는 한 달 전에,분단에서서는 15일 전에 세우고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획된 사업을 잘 준비하려면 단,분단 위원들이 주인이 되여 모임 장소 꾸리는 것은 누가 책임지고, 사회는 누가 하고, 써클 공연 련습은 누가 지도하고, 손님들을 모셔 오는 일은 누가 하는가 등 구체적으로 분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임이 진행된 후에는 단,분단 위원회에서 총화 사업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소년단원의 날을 재미 있고 뜻 깊게 보내도록 합시다.

## 4월 중 단, 분단, 반에서 할 일

**첫째;소년단 조직을 튼튼히 하는 사업**

1) 단, 분단 위원화 사업 총화 및 위원 선거 사업.

2) 새로 선거된 위원, 반장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 조직, 위원들의 분공 조직, 위원 및 반장들을 위한 강습 조직.

3)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해 온 일들을 중간 총화하고 경험을 살려 소년단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대책 강구.

**둘째; 공산주의 교양 사업**

1) 혁명 전통 학습.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 학교 시절》,《김 일성 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원쑤를 미워하고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였다》, 《김 일성 원수님은 항일 유격대를 창건하고 조직 지도하시였다》 등 제목으로 혁명 전통 연구 모임 조직.

만경대 견학, 혁명가와의 상봉 모임 조직.

2) 당 정책 학습과 나라 일 돕기

《5월 3일 원수님의 말씀 지켜》, 《원수님이 주신 새 옷》, 《의모를 단정히 하며 례절 바르게 행동하자》 등 내용으로 이야기 모임 조직, 《소년 선전 예술대》 활동 강화.

부모들의 일'손 돕기, 과일나무 심고 가꾸기, 피마주, 해바라기, 역삼 심기, 꽃밭 가꾸기 등 봄철 위생 문화 사업 참가.

학교 부근 문화 유산, 유적들, 공원 담당 관리.

3)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례절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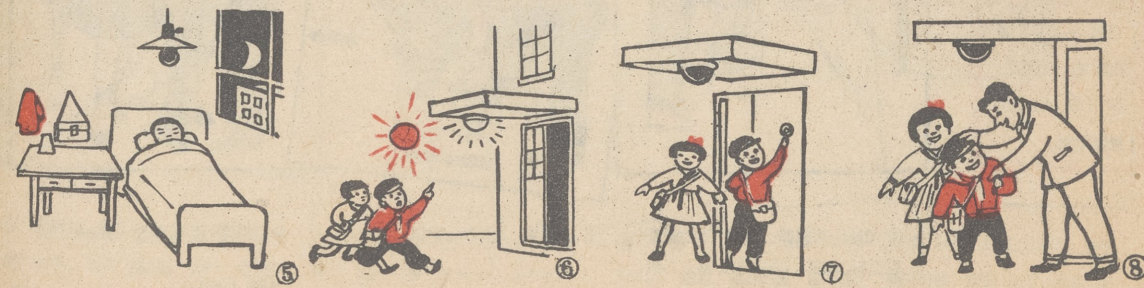
**세째; 학습을 더 잘 하기 위한 사업**

1) 단, 분단 총회와 반 모임들에서 진급 시험 결과를 가지고 총화하고 새 학년도에 공부를 더 잘 할 문제를 토의. (선거를 위한 회의에서 같이 토의)

2) 소년단원들에게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공부한다는 똑똑한 인식을 주며 학습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

3) 책을 많이 읽도록 하며 서로 도와 주는 사업 조직.

**네째; 봄철 체육과 예술 활동 강화**

(만화) 일남이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는 잡지《소년단》의 《말둥이》와 《글둥이》랍니다.

동무들 가운데는 표준말을 쓰지 않고 사투리를 쓰는 동무도 있고 편지를 쓸 때 철자법이나 띄여 쓰기를 잘 하지 않아서 편지를 보는 사람에게 실례를 끼치는 일이 종종 있다지요?

그런데 《말둥이》는 귀가 손'바닥만 해서 동무들이 소곤소곤 하는 귀'속말도 다 듣고요, 《글둥이》는 눈알이 주먹만 해서 동무들이 깨알처럼 작게 쓴 글도 먼 데서 다 본답니다.

그럼 우리 《말둥이》와 《글둥이》는 이 번 호부터 동무들의 학교와 마을을 찾아 다니며 동무들과 만나서 그 동안 보고 들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어요.

× ×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들은 떠나는 첫걸음에 가까운 평남도부터 들렸어요.

따뜻한 봄볕 아래 나무와 풀들이 움 트는데 올해 농사 차비에 바쁜 아버지, 어머니들의 부지런한 일'솜씨를 보며 우리는 열 두 삼천리'벌을 지나 어느 한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왁짝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 보니 한물커니의 아이들이 길'가에서 뽈을 차다가 자동차가 오며 빠방— 빵 하고 달려 오는 바람에 그만 깜짝 놀라서 길을 비키려다 한 애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일궈 세우려고 했는데 어느 새 《말둥이》가 그 애를 일궈 주고 옷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 주질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애는 쌀바위 중학교 중등반 1학년 길남이였어요.

《말둥이》는 아무나 척 보면《응, 저 애는 어느 학교 몇 학년에 다니고 어느 마을에 사는 아무개로구나.》하고 제꺽 알아 낸답니다.

《길남아, 어디 다치지 않았니?》

《말둥이》가 묻는 말에 길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귀가 손'바닥 만큼이나 큰 이 애가 나를 언제 보았다고 이름을 부르는가 해서이지요.

《어? 아 아니 멜없어, 넌 누구가?》,《나? 난 지나 가던 애야. 그런데 〈멜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야, 반님이로구나, 〈멜없다〉도 몰라—하하》하고 깔깔 웃어 대는 것이였어요.

《아니 〈반님〉이란 건 또 뭐냐?》

《데거 진짜 반님이네.》

《길남아, 이거 정말 모르겠구나. 〈데거〉라는 건 또 뭐냐?》

그러자 길남이는 저를 놀리는 줄 알고 불뚝성이 나서

《이거 왜 이래.》

하고 주먹을 쥐고 다가 들었어요.

《말둥이》는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으며 《길남아, 너는 말만 그런게 하는 줄 알았더니 하는 행동도 말이 아니구나, 이건 길'바닥에서 뽈을 차지 않나, 저를 도와 준 동무한테 달려 들질 않나, 그게 뭐냐, 소년단원이》

하고 타일렀습니다.

저 혼자 덤비던 길남이는 그만 어쩔 줄을 모르게 되였습니다.

《말둥이》는 길남이의 손목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남아, 네가〈멜없다〉고 하는 말은 〈일없어〉. 〈괜찮아〉하고 말해야 바르고 고운 말이다. 그리고 소년단원으로서 제 동무 보고 〈데거〉,〈반님이〉 하는 것도 다 옳지 못한 일이다. 생각해 봐! 〈데거〉는 〈저것〉하는 말의 사투린데 사람을 보고 물건처럼 저것하면 되니. 〈반님이〉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우리 조선 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 우리 조선 말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말인지 아니, 우리 말은 말'소리가 부드럽고 맑을 뿐더러 말'소리가 풍부하여 세계의 어느 나라 말 보다도 좋은 말이란다. 그런데 너는 그런 나쁜 말을 쓰는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넌 항상 말을 아름답게 쓰며 례절과 도덕이 밝아야 한다는 소년단원의 의무를 잊었니? 동무들 사이에도 례절과 도덕을 지켜야 하거든…》

《말둥이》가 차근차근 타이르는 말에 그만 길남이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이였습니다.

《걱정할 건 없어. 이제부터라도 고치면 돼.》 《말둥이》는 길남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길남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며 《말둥이》의 손목을 덥석 잡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명랑한 기분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겠느냐구요? 글쎄 그건 가봐야 알겠어요.

## 옷차림이 단정한 소년단원

영철이와 인숙이는 옷차림이 단정하여 학교와 마을에서 칭찬을 받는답니다.

그럼 옷차림을 어떻게 단정히 하는가를 다 같이 보십시오.

① 아침 학교에 갈 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거울 앞에서 한 번 살펴 봅니다.

② 신발을 깨끗이 닦아 신습니다.

③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 옷차림이 단정한 소년단원

④ 교실에 들어 가기 전에 복도에서 옷차림을 거울 앞에서 다시 한 번 살펴 봅니다.

⑤ 집에 돌아 와서 교복과 모자, 붉은 넥타이를 벗어서 옷걸개에 걸고 가름 복을 입습니다.

⑥ 다리미로 치마 주름을 곱게 다리고 붉은 넥타이를 잘 대려 놓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⑦ 잠 자기 전에 바지와 붉은 넥타이에 물을 약간 뿌려 반듯이 펴서 자리에 깔고 잡니다.

동시

## 새옷 입는 날

모두모두 모이세요
차례차례 섭시다.
새 외투를 입자요
새 모자를 쓰자요.

포근한 털외투에
새 모자 쓰고
어깨춤 당실당실
집에 돌아 갈 때에.

길 가시던 할머님
우릴 붙잡고
자꾸만 만져봐요
원수님이 주신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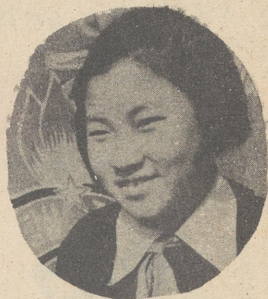
아, 고마우신 원수님께
감사 드리자.
우리 모두 최우등생 되여
이 은혜에 보답할 것
맹세 드리자.

평북도 박천군 률곡 중학교
김 학근

## 나의 희망을 꽃피울 곳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초중을 졸업하고 기술 학교에 가게 됩니다.

요새 학교에 오고 갈적 훈훈한 봄'바람에 온 들판에서 풍겨 오는 구수한 흙 냄새를 한 가슴 들이키며 무연한 고향'벌을 바라 보며 걷느라면 나의 가슴은 어쩐지 울렁거리기만 합니다. 그것은 초중을 졸업하고 기술 학교에 가서 더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된다는 기쁨과 함께 오래 전부터 마음 먹어 온 일, —고향 마을에서 일할 그 날이 점점 가까와 오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항상 기술 학교를 졸업하고 교문을 나서는 그 날과, 열두 삼천리'벌과 이마를 맞댄 덕지동'벌에서 농장원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일할 그 때의 모습을 그려 보군 합니다.

내가 고향 마을에서 농촌의 주인으로 일할 것을 생각한 것은 벌써 몇해 전부터였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자꾸만 농촌으로 끌리우기 때문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시적 후퇴 시기에 고향 마을을 지키다가 원쑤놈들에게 무참히 학살되였습니다. 나는 돌아 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원쑤 갚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일하시던 고향땅에서 힘껏 일해 볼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직 그것이 나는 아버지의 원쑤를 갚는 길이며 국가와 혁명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회주의 우리 나라 농촌에 더 많은 지식있는 청년들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농촌은 그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기계와 농약으로 농사 지으니 일은 흥겹고 수확은 늘어 농민들의 살림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7 개년 계획 기간에 나의 고향 마을 신풍리만 해도 벌에는 오곡이 물'결치고 삼동과 진촌 등성이에는 각가지 과일들이 주렁주렁 무르익을 것이며 그 아래에는 아담한 문화 주택이 더 많이 줄 지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집집마다 라지오, 재봉기 소리가 더욱 흥겹게 흘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래년에는 삼동에 800 석을 가진 구락부를 짓고 영사기까지 더 마련해 오게 되니 나의 고향은 정말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고향 뿐이겠습니까. 우리 나라 농촌 어디를 가나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잘 지으면 나라의 식량도 더 넉넉해지고 공업과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업 원료를 더 많이 보내 주게 되여 우리 나라 공업은 또 얼마나 발전하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나의 가슴은 부풀어 오르기만 합니다.

나는 농촌에서 일하면서 기수, 기사가 되렵니다. 나의 동무들인 김 성혼, 김 하일 동무들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서 일하며 배워 벌써 기수가 되였습니다.

나는 그들처럼 농촌에서 일하며 배워 나의 희망을 꽃피우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피가 스며 있고 유골이 묻혀 있는 땅, 이 땅에서 나는 아버지가 이룩하지 못한 공산주의 지상 락원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당에 충실한 《딸》이 되겠습니다.

평남 숙천군 신풍 중학교 중등반
제 3 학년 양 명숙

## 경사가 났어요

문화 주택 줄 지어 선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났어요. 경사가 났어요.
겨울에 춥지 않게 공부 잘 하라고
우리의 아버지 원수님께서
외투며 모자를 보내여 왔어요.

형님이랑, 누나랑
모두 모두 떨쳐 입고
너무 좋아 깡충깡충
토끼처럼 뛰여요.

우리 집에 찾아 오신 관리 위원장 아저씨
허물 없이 매달리는 우리를 안아 주며
온 마을 경사래요.
우리 농장 경사래요.

원수님께 우리 모습 뵈워 드리고 싶다니
싱글벙글 웃으시던 관리 위원장 아저씨
래일은 읍에 가서 사진을 찍으래요.
사진 찍어 원수님께 보내 드리재요.

강원도 문천군 문천 중학교
제 2 학년 조 성춘

## 고향의 진달래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
원쑤 치러 조국 땅을 건너 올 때면
반가이 반가이 웃으며 맞아 주던
붉고 붉은 진달래
그 진달래,

봄 소식 언제나 선참으로 알려 주는
붉고 붉은 진달래 그 진달래
우리 마을 뒤'동산에
올해에도 폈어요, 붉게 폈어요.

고향의 진달래
붉게붉게 피여날 때
지종지종 종달새들 노래 부르고
시내'물도 졸졸 노래하며 흘러요.

새 봄을 속삭이며
고향의 진달래는
따사로운 해'빛 받아
방실방실 웃어 줘요.

농장원 아저씨들
전야에 나갈 때도
고향의 진달래는
붉게 피며 웃어요.

평북 박천군 박천 중학교
2 학년 김 흥균

(세계에 이름 난 외국작가)

## 막심 고리끼

고리끼는 1868년 3월 16일에 로씨야의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여났습니다.

온 세상의 로동자들과 근로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힘과 용기와 새 희망을 안겨 준 유명한 작품을 많이 쓴 고리끼가 어떻게 자랐으며 그가 어떻게 그처럼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대한 작가로 되였는가를 알자면 그의 작품 《어머니》, 《유년 시대》, 《인간들 속에서》, 《나의 대학》 등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작품이 거의 모두가 고리끼가 겪은 일들을 적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리끼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어려서부터 남달리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래서 고리끼는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찌기 부모를 여윈 그는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철이 들면서부터 로씨야의 곳곳으로 떠돌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는 동안 그는 짜리 제도의 압제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허덕이는 사람들의 생활을 속속들이 알게 되였습니다.

고리끼는 1892년에 첫 작품으로 《마까르 츄드라》라는 소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때부터 고리끼는 온 로씨야 땅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첼까슈》 (1895년), 《이제르길 할머니》(1895년), 《매의 노래》, 《해연의 노래》(1901년)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작품들에서 고리끼는 자본주의 사회를 반대하여 나선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도 잘 사는 놈들이 있는 반면에 뼈빠지게 일하지만 검은 빵 한 쪼각도 먹기 어려운 불공정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작품을 썼습니다. 레닌 선생이 아주 높이 평가한 소설 《어머니》에서 고리끼는 세계 문학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여 혁명 투쟁에 나선 로동자의 억센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어머니 닐로브나와 그의 아들인 로동자 안드레이 나호드까의 혁명 정신은 전 세계 로동자들을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밖에도 《끌림 쌈긴의 생애》라는 작품에서도 고리끼는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로씨야의 폭 넓은 생활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라끼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어른들을 위하여 쓴 작품들 중에서 아이들이 리해할 수 있는 작품들을 골라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한 작품들로서는 《아르히쁘 할아버지와 룐까》, 《친구》, 《뻬뻬》, 《매의 노래》, 《해연의 노래》를 들 수 있습니다. 1910~1913년 간에 그는 순전히 아이들을 위하여 《아침》, 《참새》, 《예브쎄이까에게 있은 일》, 《싸모와르》와 같은 동화들을 썼습니다.

이렇듯 쏘베트 문학의 창시자인 고리끼는 유명한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번 경찰놈들에게 체포되여 정배살이를 하였습니다.

이 열렬한 작가 고리끼를 레닌과 쓰딸린 선생은 여러 번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고리끼는 실로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레닌과 쓰딸린 선생의 친근한 벗이였으며 훌륭한 전우였습니다.

1936년 6월 18일 뜨로쯔끼, 부하린이라는 악당놈들에 의하여 희생되기까지 고리끼는 실로 눈부신 창작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1917년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준비하는 로씨야 로동자들의 모범으로 되였으며 마침내는 짜리 전제 제도를 때려 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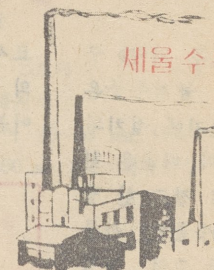
## 꼬꼬댁 꼬꼬

꼬꼬댁 꼬꼬
알 낳았다네.
꼬꼬 흰 닭이
저도 낳았다네.

조개 가루 여기 있다
어서 먹어라.
뜨물찌기 저기 있다.
많이 먹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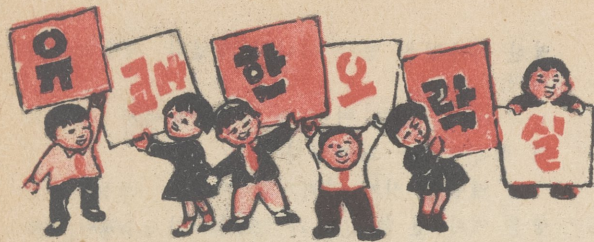
포동포동 살진 닭
뜰안 가득한
우리 집엔 꼬꼬소리
그치잖아요.

꼬꼬댁 꼬꼬
어서들 낳아라
연기 뿜는 저 공장에
우리 선물 보내자.

황해북도 서흥군 서흥 중학교 단
2 학년 김 상철

굴뚝을 높이 세우는 것은 열의 대류 작용을 리용하여 불이 잘 들이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가열된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알키메데스의 법칙에 의하여 우로 올라 갑니다.

이 때에 더운 공기는 밀도가 큰 찬공기와 혼합되면 우로 올라 가지 못 합니다. 때문에 굴뚝을 높이 세워서 가열된 공기가 찬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굴뚝 속에서 더운 공기가 속히 우로 올라 가게 하여 대류 작용을 잘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기의 대류가 잘 되면 불이 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 집은 집이나 쓰지 못 하는 집이 무엇입니까?

● 키 큰 놈이 모자를 쓰면 머리가 하나이고 벗으면 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답은 다음 호에)

(군사 유희)

## 《군기 빼앗기 놀이》

이 유희는 편을 갈라 많은 동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흥미 있는 유희이다.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고 벌판에서도 할 수 있다.

### 1. 경기 인원

한 편의 인원수는 14 명～17 명으로 하며 각 편에서는 1 명의 기수를 내고 나머지 인원들은 절반씩 공격수와 방어수로 나눈다.

### 2. 유희 방법

유희 지도자의 《전투 시작》 구령에 따라 량 편의 공격수들은 달려 나와 상대편 진지에 설치된 《전호》를 뛰여 넘는다. 다음은 한 발을 올려 두 손으로 잡고 한 발로써 상대편의 방어수들과 전투를 한다. 방어수들도 그런 동작으로써 방어한다. 잡은 다리를 놓거나 넘어지면 전사 당한 것으로 된다. 전사 당한 공격수 또는 방어수들은 유희에서 제외되여 유희장 밖으로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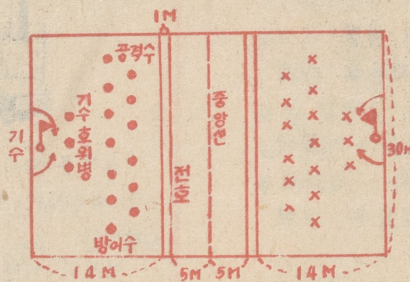
공격수들은 그 다음에 출입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기수 호위병과 전투를 한다. 출입문을 통과하면 군기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진지로 돌아 오면 환성을 올린다. 먼저 군기를 빼앗은 편이 승리한다.

### 3. 주의할 점

상대편을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서는 안 된다.

전호를 뛰여 넘을 때 정확히 뛰여 넘어야 한다.

### 유희장 설치

1 m 너비의 전호는 금을 그어 표시하며 군기 옆에는 반경 4 m 의 반원을 그린다. 출입문의 길이는 1 m 50 cm 이다.

거랑바우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지주놈의 생일날이였지요. 지주놈이 통닭을 삶아 놓고 뜯어 먹고 있는데 갑돌이란 나어린 머슴'군이 《량반님두 죽은 닭고기를 잡수십니다그려…》 하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지주놈은 성이 벌컥 나서 입에 물었던 닭의 다리를 뜰안에 집어 던지고《퉤퉤》침을 뱉으며 야단법석이였습니다. 《량반님두 공연히 노여움을 내십니다. 그려. 삶은 닭고기가 아무래두 죽은 닭고기겠지요뭐.》 하고 슬쩍 비웃어 주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뭐 어쨌다구, 저런 놈 봤나.》그러나 량반의 체면에 던졌던 것을 도로 줘다 먹을 수는 없고 해서 아쉬운듯 뜰안에 던저진 닭의 다리를 바라 보는데 마침 지나 가던 개가 횡자를 만났다는듯이 《왕!》 하고 물고 달아 났습니다. 《저, 저놈의 개새끼!》

이렇게 머슴'군 총각이 지주놈을 골려 주었지요.

이것을 아십니까!

## 시계가 고장 없게 하려면…

시계를 고장 없이 오래 가게 하려면 습기가 없고 먼지가 잘 앉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전동기, 라지오, 지남침과 같은 것이 있는 곁에 두지 말아야 한다.

특히 탁상시계는 창문턱에 놓지 말아야 하며 방안 온도가 가장 일정한 곳에 놓아야 좋다. 온도의 변화가 심하면 시계의 쇠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생긴다.



(유희)

## 탁상 혹케이

이 유희는 아주 흥미 있는 유희로써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야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희를 하자면 그림과 같은 나무로 만든 혹케이판과 혹케이채, 인형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 유희 방법

유희자는 두 명씩 두 편으로 나눈다. 유희가 시작되기 전 인형의 손잡이를 잡고 시작 구령을 기다린다. 《시작》 구령에 따라 중앙 위치에 놓여 있던 공을 한 인형이 친다. 이에 뒤'이어 다른 인형들이 그 공을 받아 치게 된다. 여기서 매개 유희자들은 손잡이를 360 도 회전시키거나 직선 홈의 좌우 쪽으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공을 받아 치면서 상대방의 꼴문에 공을 몰아 간다.

### 경기 규칙

•공을 먼저 칠 수 있는 권한은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경기 시간은 20～30 분 간인데 10～15 분이 지나면 중간 휴식을 하고 자리를 바꾼다.

•지정된 시간에 더 많이 공을 넣는 편이 이긴다.

### 기구 만드는데 류의할 점

혹케이판은 판자로 하며 4 개의 홈을 판다.

•인형은 20mm 두터이를 가진 통나무로 깎는다.

•혹케이채는 인형 량 손에 고착시키며 손잡이는 인형의 발 밑에 고착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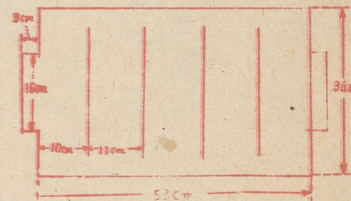
적색

흑색

(찾아 내기)

다음의 그림에 어떤 도구들이 들어 있는가를 찾아 내보세요.

(해답은 다음 호에)

공작

## 책꽂이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책꽂이를 만들어 봅시다.

두터이 25～30 mm, 너비 150～170 mm, 길이 300～400 mm 되는 널판자를 밑바닥으로 하고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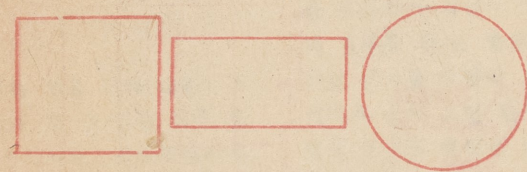
만드는 방법: 밑바닥 널판자를 길게 세 쪼각으로 짜릅니다. 이 때 가운데 조각은 폭이 넓고 량쪽 조각은 같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가운데 조각을 4등분하여 한 쪽이 《3》, 한 쪽이 《1》이 되게 짜릅니다. 이 《1》은 좁은 두 쪼각 널판자 짬에 (그림처럼) 넣고 못을 박아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밑바닥이 두 개 되는데 이 두 개의 밑바닥에 세우개를 그림처럼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두 밑바닥을 맞춘 다음 네모난 각재를 밑바닥 널판자 안쪽 밑에 못으로 붙이면 됩니다.

이 책꽂이는 늘쿠어 쓸 수 있습니다.

## 현상문제

(중등반)

이것은 황남 재령군 김 제원 중학교 3 분단 문 운애 동무가 보내 온 문제입니다. 그는 같은 길이의 노끈으로 정방형, 구형, 원형을 만들었는데 그 면적이 각각 달라졌답니다. 왜 그럴가요?

(인민반)

다음과 같은 9 개의 점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연필을 한 번도 떼지 않고 네 개의 직선으로 9 개의 점을 다 통과하려면 어떻게 할가요?

(요술)

### 물 빛 변하기

**준비:** 유리 고뿌 한개, 작은 검정 보자기 한개, 검은 종이 한 장.

**노는 방법:** 검은 종이를 고뿌에 말아 넣고, 물을 가득히 부은 다음 검은 보자기를 씌워 놓는다.

연기자는 보자기를 벗기고 고뿌를 들어 보이며 검은 색 물이 들어 있는듯이 보인다. 고뿌를 책상 우에 다시 놓고 검정 보자기를 씌워 둔다. 다시 연기자는 검정 보자기를 벗기면서 재빠르게 고뿌 안에 깔린 검은 종이를 빼 낸다.

다음 고뿌의 물을 쏟으면서 물 색이 변하였다는 것을 보인다.

### 1 호 현상 문제 해답

(인민반)

《우리는 삐오넬》, 《어린 동무 노래 부르자.》

《삐오넬가》, 《소년군가》, 《아동가》, 그밖에 많은 혁명 가요들이 있습니다.

(중등반)

《길천령아 전하라》의 주인공 김 룡남, 박 명숙,

《세 아동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장 부환, 리 광춘, 박 은숙,

《작탄 담은 화로》의 주인공 홍 응삼,

《붉은 넥타이》의 주인공 김 봉률, 연길현 로투거우 아동단원이였던 리 태식, 리 청금.

그 밖에도 많습니다. (그들의 투쟁 내용은 동무들이 우의 제목의 글을 읽어 볼 것을 바라며 여기서는 약합니다.)

### 1 호 현상 문제 당선자

(인민반)

평북 동창군 대동 중학교 김 영환
자강도 송원군 월현 인민 학교 황 종빈
개성시 남산 중학교 김 춘옥
평양시 형제산 구역 학산 중학교 정 정란
정 정숙
평남 양덕군 평원 중학교 허 영숙
함남 광천군 룡대 중학교 김 우광
개성시 만월 중학교 진 순주, 황 미레
한 순옥, 김 복순

(중등반)

평북 정주군 일신 중학교 김 창순
평남 회창군 회창 중학교 차 경숙
황북 평산군 물개 농업 학교 로 응걸
평남 성천군 신성천 중학교 김 창조
량강도 운흥군 생장 중학교 조 남천
황남 해주시 왕신 중학교 리 중선
량강도 부전군 호안 중학교 장 충식


잡지명 소년단 제 3 호 (류계 173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2월 21일 발행 1964년 3월 1일

ㄱ—430041 값 35 전




## 화분 가꾸기

### 흙 갈아 주는 방법

화분의 흙은 1년에 한 번씩 이른 봄에 가서 가라 주어야 한다. 큰 화분인 경우에는 2—3 년에 한 번씩 가라 주어도 된다. 화분의 흙을 가라 줄 때에는 뿌리와 아지가 상하지 않도록 뿌리의 흙을 깨끗이 턴 다음 뿌리를 다듬어 다른 화분에 옮기면 된다. 화분이 적어 큰 화분에 옮길 때는 그대로 옮긴후 빈 자리를 부식토로 채운다.

(좋은 방법) (나쁜 방법)

### 물 주는 방법

ㄱ. 꽃의 물은 아침 10 시경과 저녁 5 시경에 주어야한다.

ㄴ. 여름에는 매일 1 회씩 물을 주어야 한다. (선인장류는 3～4 일에 1 회씩 주는 것이 좋다)

ㄷ. 겨울에는 3 일～4 일에 1 회씩 주고 선인장류는 10일에 1 회씩 주어야 한다.

### 화분의 비료

닭똥, 밥찌꺼기, 쌀뜨물, 고기 씻은 물을 푹 썩여서 10배～20배의 물에 타서 10일에 1 회씩 주어야 한다.

쌀뜨물을 자주 주면 썩어져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잘 썩여 배합해 주어야 한다. 고기 씻은 물은 짜지 않은 물만 주는 것이 좋다.

정기 간행물
번호 제 13454 호

글 안형룡　　그림 안창수

⑳ 명숙이는 요란한 폭음 소리에 눈을 떴다. 사방은 그믐 밤 같이 캄캄하여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단지 알콜 냄새가 풍기는 것을 보아 지금 자기가 치료실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문뜩 운전실 쪽에서 신음 소리가 들려 왔다. 불안한 생각에 잠긴 그는 허겁지겁 손더듬을 해가며 기계실로 향했다.

㉑ 기계실에서 명숙이는 쓸어진 창남이를 발견했다.

창남이를 일으키는 순간 명숙의 손에 무엇인가 잡혔다. 손전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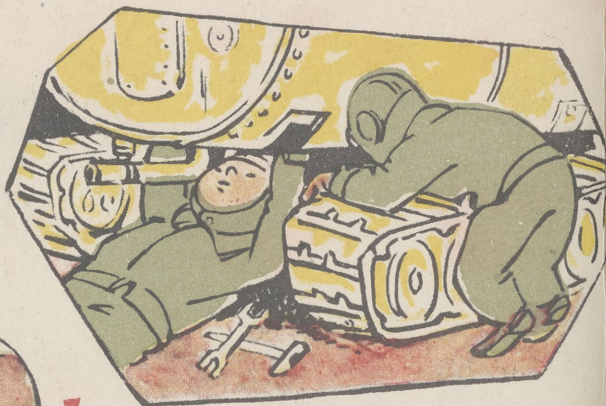
손전지불에 비친 창남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러 내리고 있었다. 명숙이는 바삐 옆구리에 찼던 개인 붕대를 꺼내 창남의 상처에 감았다.

㉒ 명숙의 치료를 돕다가 분석실에 갔던 관식이도 신음 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뛰여 왔다.

그들은 몇 십 분 전 명숙이가 겪은 교훈을 잊고 기관에서 나가는 불찌를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스가 폭발되면서 차가 고장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까스가 탄화(나무가 공기 없는 곳에서 석탄이 되는것)될 때 생긴 메탄까스란 것을 분석 결과를 보고서야 알았다.

못 쓰게 된 축전지를 수리하여 차에 불이 오도록 한 후 창남이와 관식이는 차에서 내려 뒷바퀴쪽으로 갔다.

차에 설치된 측등과 후면등이 탐조등 처럼 그들의 작업장을 비치였다.

㉓ 차에 남은 명숙이는 무심결에 데레비죤 막을 드려다 보다가 그만 기절하여 뒤로 나 자빠질 번 했다. 데레비죤 영사막에는 창남이와 관식이가 작업하는 5~ 6m 뒤에 끔찍스러운 괴물이 입을 쩍 벌리고 서 있었다.

그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6 천 만 년 전에 살던 악어 같은 짐승이 (길이 40 m 높이 15 m) 지질 작용으로 땅 속에 묻혀 화석이 되였다는 것을 몰랐다.

《어마나》

명숙이는 겁에 찬 소리를 지르며 차 문을 화닥닥 열어 제끼며 뛰여 내렸다.